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社說

開戰以來激戰演出

一大血戰遂展開!
兩方死者二千餘名
肉彈相搏하는 凄慘한 白兵戰을 演出
戰場에는屍體疊疊重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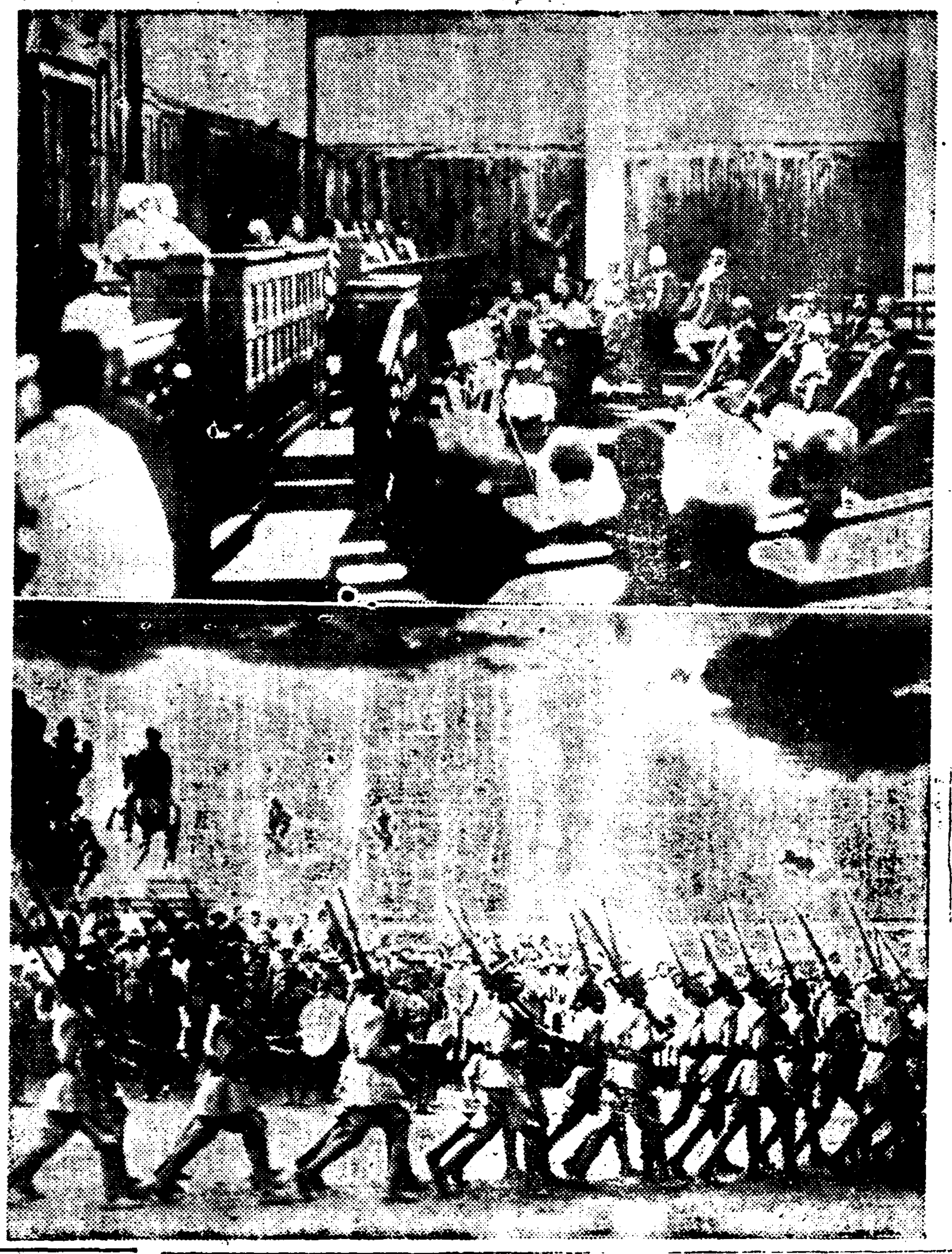
【아디스아베바五日發聯合】 伊太利軍 東方部隊는 므스아리山麓을 迂回하야 無人之境을 疾走하는것과 가티 西進을 繼續하고 잇든바 四日夜 爾來 데시야즈 하일셀라시에 구구사將軍이 引率한 에디오피아軍 前衛部隊와 衝突하야 다나킬地方 一帶에 亘하야 開戰 以來 一大 血戰이 展開되엿다 砂漠地帶의 暗黑을 뚤코 伊、에兩軍의 砲聲은 天地를 울리고 銃火는 尖光을 發하야 凄慘을 極하고 兩軍은 드듸여 白兵戰으로 轉하야 아스브아브附近에서는 肉彈相搏하는 激戰을 展開하고 잇다 兩軍死傷은 헤아릴수업고 戰場에는 屍體가 疊疊한現狀으로 非公式算定에 依하면 에디오피아軍의 死者 一千三百 伊太利軍의 死者 七百이라 한다

伊太利軍難戰後 『안바、아시베스』占領

【아스마라五日發電通】 五日早朝 에리트리아와 아도와의 山路途中에잇는 안바、아시베스에서 伊에兩軍間에 猛烈한激戰이 展開되여 地理에 의지못한 伊太利兵은 一時 非常히 苦戰에 陷入하엿스나 三十數機의 伊軍飛行機가 에디오피아軍의 頭上數呎의 地點에까지 急降下하야 機關銃으로 掃蕩하엿기때문에 戰鬪는 마친내 伊太利軍의 勝利로 歸하야 伊軍은 難戰後 同地點을 占領하엿다

伊軍의不振을 伊政府도肯定

【羅馬五日發聯合】 伊太利東阿遠征軍은 先祖가慘敗한 古戰場인 아도와奪還作戰에 十四萬의大兵을 同方面에 集結하고 野砲三百은 鷄列을지여 猛擊을 加하고잇스나 에디오피아軍의 抵抗은極히 頑强하야 五日午前까지도 아직 아도와를 奪取하게되지못하엿다 伊太利政府는 五日午前十時에 이르러 마친내 戰況이不振하는 事實을 肯定하야左와如히 發表하엿다 伊太利軍은 果敢히 아도와近郊까지 進出하엿스나 에디오피아軍은 頑强히 死守하고잇슴으로 아도와은 아직攻略치못하엿다



戰火中의에디오피아 寫眞上은 戰爭問題만을 議論하는 에디오피아의 非常時 議會風景이나 議員은 選拔된二人의長者이오、議長뒤에 列席한것이 各大臣、寫眞下는 皇帝의御親閱을맛고 最前線에나가는 에디오피아兵、左便 銅像은 옛날 아도와에서 伊軍을 擊退하야 勇名을날린 先帝 메네릭陛下

米國은中立嚴守

【시다플스(오하이오州)五日發聯合】 上院議員나이氏는 五日 當地에서 左와如히 伊에兩國間의 戰爭開始의 重大時局에際하야 米國으로서는 어데까지 中立을 嚴守하는 立場을 採擇할 必要가 잇다는意見을 强調하엿다 伊太利軍의 에디오피아侵略에 刺戟되여 聯盟이 對伊經濟制裁를 決定하고 米國이 이制裁에 參加하게되면 結局 米國은 戰爭渦中에 휩슬리게되는 結果를招來할것이다 此際米國이取할 最善의方途는 嚴正 中立을 지킬것으로 紛爭當事國의何者에나 加擔치안코 武器必需品 搬出에는 兩國에 對하야 모도 反對態度를 闡明하는것이다 政府當局은 一九一四年當時의 쓰린經驗을 再次 國民으로하여금 맛보게하지안토록 此際充分注意하야行動할 必要가잇다

伊에戰況抄 (十月三日—五日)

◇三日—伊太利空軍은 에軍北部 아도와에對하야 爆擊을 開始함으로써 드듸여 戰端開始、伊首相은 同時에 全國總動員令을發하는 同時에 東阿遠征軍總司令官데·보노將軍에게 進軍命令! 이로써 宣戰布告업는 事實上의 戰爭은勃發、空軍과陸軍 陸軍도 아도와로進擊

◇에디오피아皇帝도 三日午前十一時 全國民에對하야 總動員令을發布

◇四日—伊軍의飛行機五十臺의 아도와爆擊結果判明된 死傷者千七百名 (但、데일리헤럴드紙의報道)

◇戰爭은 南方 오가덴州 왈왈에서도 演出된바 西軍陸上部隊의激戰結果 에디오피아軍側의 死者 二千 負傷者多數를 내엿다

◇伊太利軍 에軍北部의 아디그라트占領

◇五日—伊太利軍、에리트리아와 아도와의山路途中에잇는 안바、아시베스에서 에디오피아軍과衝突하야 白兵戰을演한結果 兩方二千餘名의 死傷者를 내는 大激戰後 三十餘臺의空軍威力으로、에軍을後退식히고 우同地를 占領하얏다

伊軍漸次後退 西北部에서는에軍進擊

【아디스아베바五日發聯合】 에디오피아政府에 到着한公報에依하면 北部戰線에잇서서 에디오피아軍은 伊太利軍의 猛擊을 阻止하야 伊太利軍은 四日夜 全線에 亘하야 漸次 後退를 開始하게되엿다고한다 特히 西北部에서는 아키가이드州方面에서는 에디오피아軍이 도리혀反擊으로나와 着着 成果를 收得하고잇다 더욱 다카제河附近에잇서서 伊太利軍의行動은 要컨대 아도와攻略을 目標로하는 牽制行動에不過하는바 에軍作戰本部에서도 伊太利軍의意圖를 觀察하고 果敢히 激擊하는데 끈지리라고 解釋되다

伊國을侵略者로!
聯盟緊急理事會서報告採擇

【쥬네브五日發電通】 聯盟緊急理事會는 五日午後五時(日本時間 先六日午前一時)부터 公開會議를 開催하고 于先 十三國委員會의 報告를 採擇한後 伊太利를 侵略國으로 認定하는 手續을取하기로 決定하고 이뜻을 公表하엿다

伊機一臺를에軍射落

【아디스아베바五日發電通】 北部戰線으로부터온 報道에 依하면 아도와爆擊時 伊太利軍飛行機一臺는 에디오피아軍의 機關銃의射擊을바더 火災를 이르켜墜落하엿다

伊覺書聯盟接收

【쥬네브五日發電通】 聯盟事務局은 五日아도와爆擊에關하야 右는 緊急不得已한것이라고 伊太利政府의 覺書를接收하엿다

軍事行動은局限
伊에間戰鬪는短期間內終了
伊首相對英外相親書內容

【倫敦五日發電通】 確聞한바에依하면 駐英伊太利大使그란디氏는 四日午後 호어外相을 訪問하여 會談 同外相에게 英國政府에對한 뭇솔리니首相의 親書를 傳達하엿다 그親書는左와如히 뭇솔리니首相의 決意를 披瀝한것이라한다

一、伊太利는 歐州平和維持를爲하야 다른聯盟國이 伊太利를 聯盟에 머물지못하게하는 態度를 取하지안는限 聯盟을脫退치안함

一、伊太利는 伊에間의 軍事行動을 植民地戰에 限定하고 自進하야 歐州로 擴大되는것을防止함

一、關係諸國이 地中海에잇서防禦的行動을 停止하면 同地方의 狀勢는 緩和되여 伊에間의戰鬪는 短期間에 終了될것이다

伊讓步안하면 直接交涉不應
英對伊首相親翰態度

【倫敦五日發聯合】 뭇솔리니首相은 四日、親翰을 호어外相에게 보내여 直接交涉할 意志가잇다는것을 提示하엿슴으로 英佛伊三國政府間에 再次 外交的折衝이 展開될 氣運이 濃厚하게되엿다 英國政府는 直接交涉을 期待하지안코 外交的折衝에 依하야 뭇솔리니首相이 從來 强硬方針을 緩和하는 事實이 確認되지안는限 直接交涉一切에 應하지안흘 意向이라고 解釋된다 뭇솔리니首相의 示唆에 對하야 英國政府의 方針은 左와如하다

一、巴里會商以來 數次折衝에依하야 直接交涉은 何等效果를 나타내지못한事實이 確認되지안는以上 뭇솔리니首相이 多少라도 讓步하야 從來의 意向을 緩和하지안는限 直接交涉은 無用이다

一、뭇솔리니首相이 地中海上의 情勢를 緩和하기爲하야『警戒的手段撤去』를 要請하고잇스나 伊太利政府는 現在埃及國境附近기레나이카에 八千의大軍을 集結하여잇는바 英國政府는 自衛上 機宜의處置를講究하지안을수업다

에首都의人心 極度로動搖
千五百名死傷報로

【아디스아베바五日發電通】 伊太利軍의 아도와爆擊으로 에디오피아兵이 合計千五百名의 死傷을 내엿다는 報道가 傳하야 首都의 人心은 極度로 動搖되여잇다

竹田宮同妃兩殿下 五日京城御着

師團對抗演習을 御見學하시기前에 朝鮮內情을 御視察하압시기爲하와 御來鮮、昨四日朝 釜山御上陸 佛國寺에서 御一泊하압신 騎兵第一聯隊付騎兵中尉竹田宮恒德王殿下께압서는 妃殿下御同伴으로 五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御着 宇垣總督、植田軍司令官、今井田政務總監以下 官民多數 諸機關의 御出迎을 바드시고 直時朝鮮神宮에 御參拜하신後 昌德宮을 御訪問하시옵고 同四時二十分 御宿舍朝鮮호텔에 入하시와 御少憩하신後 同六時半에 龍山官邸에서 宇垣總督의 晩餐會에 御臨席 明六日은 午前中 總督府 勤政殿 博物館 經學院 博文寺等을 御視察하시고 午後에는 獎忠壇戰蹟을 御覽하신後 軍司令官官邸에서의 植田軍司令官의 晩餐會에 臨하압시고 七日朝 京城驛御發金剛山에 向하실御豫定이시다

皇儲軍根據地에 伊軍大爆擊開始

【아디스아베바五日發聯合】 伊에兩國戰鬪第三日은 아도와 악숨을 中心으로 하야 開始되여 早朝以來 戰鬪는 더욱猛烈化하고잇다 伊太利軍은 애번에 아도와를 企圖하야 優勢한 空軍部隊의 掩護下에 野砲 山砲의砲列을 敷하고 戰車로써 突擊하며 에디오피아軍은 退却하야 天嶮에依하야 伊太利軍의 防禦에 當하고잇다 總指揮하면 에디오피아北軍主力라스세윰은 皇儲가사將軍麾下의 精銳은 조금도 動치안코 同將軍의片腕이라고도할만한 가브리엘將軍은 前衛部隊一個師團을 引率하고 得意의 奇襲戰法에 依하야 伊太利軍을 괴롭게하고잇다 第一回主力衝突後 伊太利軍은 陸上部隊의 追擊을 中止하고 專혀 空軍部隊에 依하야 에디오피아에打擊을준後에 陸上部隊의 進出을 圖할作戰이나 伊太利空軍의 無慈悲한 爆擊도 山間에 出沒하는 에디오피아軍에게 徹底的打擊을 與할수업서 에디오피아軍의 意氣는 衝天의氣勢가 보인다고한다

【아디스아베바五日發聯合】 至急報】 伊太利空軍의 精銳十數臺는 왈드市上空에 襲來하야 午前八時까지 에디오피아軍의 根據地에 猛烈한 爆擊을 敢行하엿다 皇儲아스하브큐?수선殿下는 中央軍二十一萬을 引率하고 東方으로부터 進出하는 伊太利軍을 阻止할 方針인데 伊太利軍은 먼저 空軍의威力을 發揮하야 에디오피아軍에打擊을與할作戰이다

아도와駐在의 伊領事逮捕

【아디스아베바五日發聯合】 에디오피아軍當局은 아도와駐箚伊太利領事프랑카氏를逮捕하엿다

第二次世界大戰과景氣
化學工場은變裝
重工業은大飛躍
(四) 徐椿

前述은 말하면 消極的現象이다。新聞、여기서、歐洲를 中心으로한 第二次世界大戰이 이러나면、그때에 中立國으로 잇슬 遠東의 日本이 바들 經濟的利益을 具體的으로 말하면 如左하다。

첫재 所謂、化學工業이다。이것은 다시 無機化學工業、有機工業의 두가지로 난호이는것인데、無機化學工業은 酸及알카리工業、硝子工業、粘土工業、人造肥料工業、藥品製造工業、冶金工業等等의 그것이오、有機化學工業은 瓦斯工業、瓦斯副生物精製工業、콜-탈-染料製造工業、石油及 아스팔트工業、木材乾溜工業、油脂採製工業、石鹼及 그리세린工業、製紙工業、塗料工業、고무工業、고무代用品工業、香料工業、纖維工業、製革 及 製膠工業、蛋白質工業、染色工業、醱酵工業、세루로이드工業、人造絹絲工業、硫酸工業、澱粉工業、釀造工業、藥品製造工業、다이나마이트製造工業等等이 그것이다。

上記諸種工業을 化學工業이라고하는데、此等 諸工業은 大機械의 末端 即 動力以外의 部分을 若干修正함을 따라서 軍需品製造工業으로 轉向할수가잇스며、또한 그中에는 直接、軍需品으로、씨우는者도 잇다。그러기때문으로 歐洲에 戰爭이 나면 이것들은 第一着으로 相當한 影響을 바들것들이다。

다음은 重工業이다。重工業이라는것은 輕工業에 對한 말인데 그뜻을 槪言하면 生産하는 容積에 比하야 무거이가 무거운 境遇(結局은 鐵道鋼鐵 等等의 鑛物을 直接原料로하는 工業)에、그一系列의 工業部門을指稱하는것이다。이標準에 依하면 鐵鋼業、金屬精鍊工業、機械器具製造業 造船業、車輛製造業等等은 重工業의 代表되는것들이다 말하든 끄치니 마자說明하거니와 이에 對하야 前述한 化學工業과 紡織工業(纖維工業이라고도한다。)等等은 生産되는 財貨의 容積에 比하야 무거이가 훨신 가부여운者로서 이것을 輕工業이라고한다。

그런데 歐洲諸國特히 英獨은 重工業으로 有名한 나라들이다따라서 아직까지는 東洋諸國及蘇聯에 씨우는 機械의 大部分도 大槪 歐洲에서 輸入하던것이다。그런데、이제 萬若、第一次大戰時모양으로 歐洲諸國이 戰爭의 渦中에 휩쓸녀드러가는날이 오면 그제는 歐洲諸國의 重工業도全部 自國用軍需工業으로 轉向하거나、그러치 안터라도 地中海의 危險때문에、亞弗利加南端喜望峰을 迂廻하는 航路를 取하는外에 東洋에 올 길이 업게 되다고하면 運賃、保險料等이비싸게 드는關係로 歐洲의 重工業製品(機械、器具類)은 當然히 東洋으로 올수가 업시 될것이다。못 오게 되면 東洋天地에서는 日本의 重工業製品이 獨步的 活舞臺를 展開하게 될것이다。勿論、亦是、中心國으로잇슬 米國과의 競爭을 豫想할수가 잇스나 第一次大戰의 前例로 본다고할지라도 첫재 米國은 歐洲交戰國에의 物資供給을 主로하는 關係로、둘재 地理的으로보아 東洋을 相對하는데는 日本보다不利한 關係로 亦是、東洋에서는 米國보다 日本이 훨신 有利한 地位에 處하게 될것이다。

다음은 紡織工業이니、英國의 參戰으로 英國紡績業의 中心地 랑카시아가 休業하는날이면 日本의 大阪은 世界紡績等에對해서는 거의 獨舞臺를 演出하다십히 할것이다。

다음은 生絲니 日本産生絲의 八割以上이 米國으로 가는것인데 歐洲를 中心으로한 大戰에 잇서서는 米國은 日本과 同一한 處地에 서서 漁夫의 利益을 得할것인 故로 歐洲의 戰爭은 米國의 好景氣를 招致하고 同國의 好景氣는 生絲의 需要를 增加하야 그結果로 日本의 生絲는 輸出이 增進될것으로 豫想된다。

特히 生絲、人絹及 綿絲布에 잇서서는 伊太利와 日本과는 競爭的地位에 處한 故로 今番의 伊에紛爭이 歐洲諸國에까지 擴大되지 안코、다만 伊에兩國間의 戰爭에 局限된다고 할지라도 그戰期만 길게 되면 日本의 生絲、人絹及 綿絲布는 相當히 有利한 地位에 설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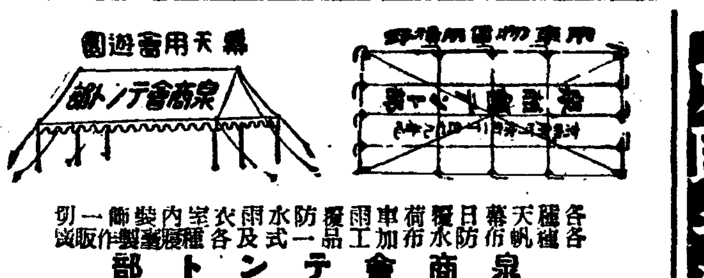
다음 이것은 前記 重工業에 對한 記述과 約干、交叉되는바가 잇스나 特히 따로떼여 말할것은 日本의 海運業과 이에 따른 造船業이다。歐洲諸國의 商業用 船舶이 戰爭으로 因하야 世界를 도라단니지 못하게되면그대신으로 全世界를 도라단닐者는 米國及日本치 밧게 업다。그러나 뭇건대 米國의 商業用船舶은 現在、日本치에 比하면 數實兩方面으로 뒤떠러진다고한다。따라서 歐洲大戰이나면 日本의 海運業과 이에 따른 造船業은 크게 有利할것이다。

다음은 鑛業이니、地下埋藏物中에 特히 軍需工業에 씨우는 鐵、鉛、石炭、重石等의 採掘業이 旺盛할것을 豫期할수가잇다。

金銀 白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ヘイゼウイ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安國洞네거리·電車停留場前(電光二一三一番)
入院隨意 診察 自午前九時 至午後八時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傳文社



各種天幕日覆荷車雨覆防水衣雨室內裝飾一切
各種帆布防水布加工品一式及各種天幕製作販賣
泉商會テント部
朝鮮京城府竹添町一丁目七九番地
電話光化門七五一番·振替京城一七九九二番

團成社
十月四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午後二時、七時 ―特別料金―
◇京城撮影所超特作全發聲 監督撮影 李明雨 錄音 李弼雨、中川曉史
春香傳
文藝峰、韓一松、林雲鶴、崔雲峰、李鍾哲、朴齊行、金蓮實、盧載信、金英淑、共演
滿天下待望旣久든最大豪華版朝鮮最初의發聲映畵로서의爆發的衝動!! 根絶哀絶한烈婦春香의哀怨
◇파라마운트超特作日本版 요셉폰스탄빠크監督撮影 마르레네、데트릿히主演
西班牙狂想曲
스탄빨되히名컴비네순이製作한 最高의藝術作品
◇東京日日、大阪每日 特輯號 噴火山上의伊太利와에디오피아
◇파社特作漫畵 三篇
全鮮映畵殿堂第一 電話光 九五九

中央館
當る一日特別大公開『本週より』晝夜三回興行 第一回 午前十一時半 第二回 午後二時 第三回 午後七時四十分
初秋映畵鑑賞シーズンに放つ東西二大名篇同時大公開!!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超特級作 文豪 山本有三先生原作 脚色 山內英三 監督 西鐵平 撮影 二宮義曉
オール・トーキー
嬰兒殺シ
鷹花森靜子 主演 松本泰輔・毛利峰子 東榮子・河合靜子・金澤コンチヤン 助演 共演
女士方お後の惱み!生さんが彼女が犯せる罪、そしてその告白!これぞ嗤らさるる魂の叫びで!!
佛蘭西P・B映畵社超特作 原作 エクトル・マロー 監督 新鋭マルク・アレグレ
家なき兒
ロベール・リナン少年 主演 ヴアンニ・マルク 助演
ドルヴイル まだ見ぬ母を尋ね山河越える三千里・少年の姿も素朴で純情な佛蘭西名篇!!
永樂町 電本二三〇〇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합
돈버리 조흔家庭工業
最高의社會意義잇는大事業紹介進

第一 의工業은여러분의家內勤勞로되는日用消耗品으로簡單히製造되는其他材料永久自由販賣等等
第二 의工業은世界的新生活必需品인婦女子必然的製造로서消耗品上이라...
內外貿易 大阪市西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京城販賣所 電本一五九七

蛔虫驅除에는데 맛잇고잘듯는 珊篤尼涅菓子
산둑이 날과자
蛔虫이寄生하야배가압흐고얼굴이나고가슴이 압흐고애들이밤에울고안자는때는
산둑이날과자 珊篤尼涅菓子를먹이시오
全國各藥店에잇슴

岩崎大海堂 セメンシ菓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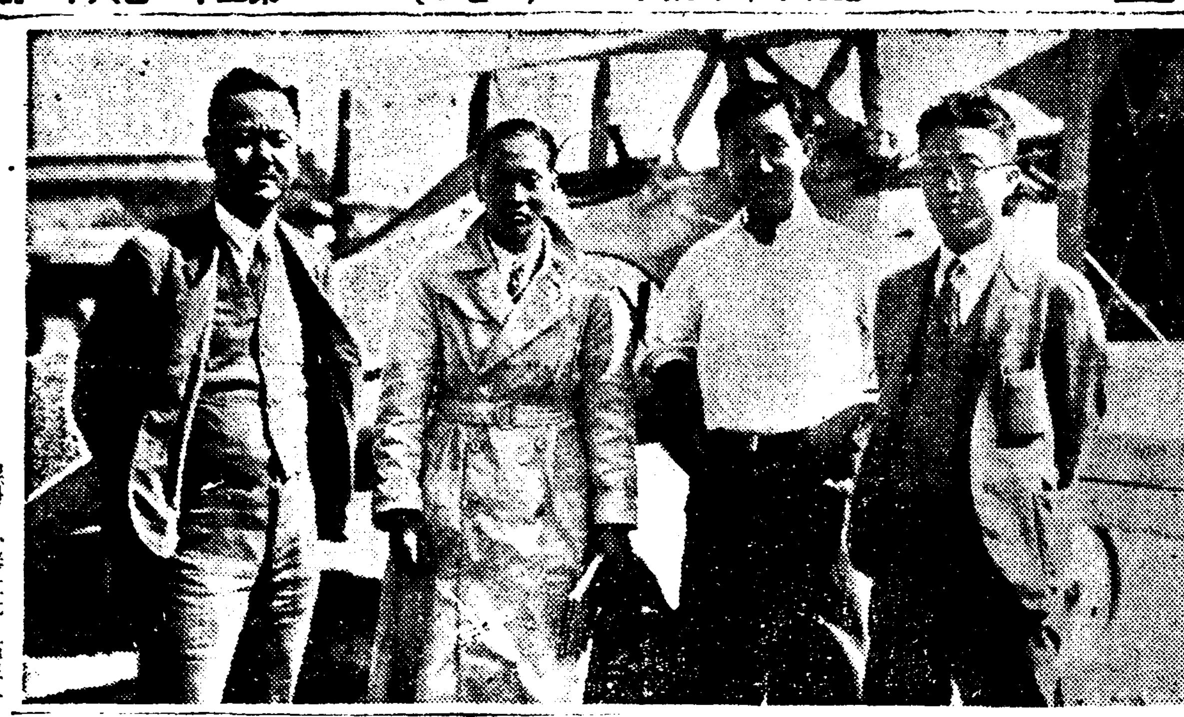
在滿同胞의 教育費
總督府補助增額必要
現在廿二萬圓으로는大不足
住民도負擔不可避

최근만주벽지의 교통개발과 치안회복에따라 조선인 이주자의 상황이 판명되며 또간도회지의 집단적이주자의 격증에따라 재만조선인의 초등교육기관은 대단히 부족되야 각지에서 학교의 증설과 학급증가의 계획이 잇서 이에대한 총독부의 보조요구가 만타는데 총독부에서는 종래의 교육시설 보조금 이십이만원이상의 예산을 어들수는업서 명년도에도 이이상의 보조금을 지불할수업다하야 외사과에서는 주만각지파견원에게 현재의 교육비를가지고 각학교의 지급액을 적게하야 넓리각학교에주어가지고 남어지는 각학교소재지의 주민이 부담하도록하라고 통달하는동시에 재만조선인의 초등교육확충문제는 재만조선인에대한 근본방책의확립과 만주국에대한 여러가지현안을 해결한후에 교육시설의 근본방책도 확립하야 정식으로 교육시설에관한 예산증액에 대한 요구를 재무당국에 요구할터이라한다 따라서 재만조선인은 치외법권의 철폐에따라 명년부터 새로부담할 만주국의 세금보과를 담당하고또다시 교육비로는 민회또는 학교조합에대하야 상당한 액수를내어야 될지경으로 이중부담을 면할수업다한다

鄕土訪問의 朴機
昨日蔚山에到着
太刀洗를經由、三時廿三分에
今朝京城으로飛來

고토방문의 장도를 떠난 일등비행사 박봉지(朴奉祉)군은 오일아츰팔시이십분에 대판목진천(大阪木津川)비행장을 출발하야 태도세(太刀洗)에 오전십일시삼십분에도착하야잠간쉬어가지고다시오후한시이십삼분 태도세를출발하야 정든고토를향하야 현해탄을건너 동삼시 삼십삼분에 울산(蔚山)비행장에 무사착륙하야 제일보를 밟앗다 이로서어제아츰에일시 일긔가 흐려서 념려되든 박군의 비행은 순조로진행되고잇다

오일오후 삼시이십삼분 울산(蔚山)비행장에 무사히 착륙한 일등비행사 박봉지(朴奉祉)군은하로밤을 울산에서 쉬이고 금조 울산비행장을 출발하야 경성으로 향할예정이다



◇大阪着陸한朴機 ×表가 朴奉祉氏 右로부터 本社大阪支局長 金光洙氏 張德昌氏(日本航空輸送硏究所 木津川出張所長) 左端이 本社大阪支局總務 朴永詩氏 (四日木津川飛行場에서)

仲媒잘못햇다 毆打當코提訴

【保寧】보녕군 주산면 금당리(保寧郡珠山面金塘里)에 거주하는 임승호(任昇鎬)의 처 백씨(白氏)(×)는지난이십륙일 오후칠시경에 동리에 거주하는임홍준(任弘準)의처 김씨(金氏)(×)가 전귀 백씨집에와서 잡가들함이잇다고 자긔집으로 가자고하므로 갓든바 형준의처와 장녀연애(然艾)(×)가 작당하여 란타하엿다는데 조사한바에 의하면 전귀임승호가 작년에 임형준의 장녀 연애를 동군웅천면 로천리(熊川面蘆川里) 김철제(金哲濟)의 삼남영원(榮元)(×)에게로혼이중개를 하엿든바 남편의하대가심함으로금년이월경에자긔친정으로와서 친정사리를 하는데 중매잘못햇다고 승호처백씨를 구타한것이라하며 임승호는 웅천시(熊川市)최공의에게서 상처일개월의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제기하엿다한다

女子에수치보고 老人이自殺

식모한테 엉큼한 수작하려다가 창피보고 목매어죽은 늙은이가 잇다 시내봉래정(蓬萊町)사정목 십번지 오신삼호 홍건식(洪健植)(×)은 이일오후 여섯시동 사정목 사십번지 산에잇는 아까시아나무에 목을매어 자살한 것을 통행하는사람이 발견하고 즉시 봉래정 파출소에 보고하야 본서로부터 경찰의가 출장 검시한후 시체는 유족에게인도 하엿는데 원인은 홍건식은 이 상일전에 자긔집에 고용되어잇는 김정봉(金正鳳)(×)이라는식모에게 엉큼한수작을하다가 거절을 당하고 그소문이퍼저 망신을 톡톡히한 끄테 붓그러운생각으로 그와가티 자살을 한것이라한다

浦港市內에 密酒者激增

【浦項】포항세무서(浦項稅務署)관할하의 밀주조자(密酒造者)는 작년도중의 밀조위반건수 오백팔십여건에 비하야 금년도에와서는 발서구월말일현재에륙백건을 돌파하엿다는데 현재수자를 보아도 작년일년간수자보다만흔상태인데 금년도말까지간다면 확실히 작년도의배이상은 갈것이라고 세무당국자도 이에미연방지책을 심각히연구중이나 아직명안이업는듯하다고한다

貧農層을울리는 支拂命令狀雪飛
九月부터十月五日까지의統計
尙州支廳에二百餘件

【尙州】경북상주군하에는 립도차압이 성행하야 날을따라증가하는중 립도차압위에 세민과빈농계급을 울리는 지불명령이만허 여간괴땀으로지은농사와 세간즙물은 채귀자의손으로 더러저가게데야 일반빈민세농계급에서 전전긍긍한다하며 지난구월한달에상주지청에신청건수가일백칠십건 십월오일까지 삼십건합이백여건이라는바 압으로는날을더할따라 건수가증가하리라고한다

足鎖를끈코破獄

【奉天四日發聯合】삼일오후열한시 이십분경에 제일군영구(第一軍營口)봉천육군감옥(奉天陸軍監獄)제사감방에 수용중인열하혼성제삼려기병제륙단(熱河混成第三旅騎兵第六團)중위신영(申榮)이하 일곱명은 족쇄(足鎖)를깨치고 파옥탈주를 기도하다가즉시 간수에게발견되야 한명은사살되고 일곱명은 체포되얏다

年復年增加하는 染病
八月中發生千八百
死亡者만도 三百六十一名
前年同期보다九十名增

총독부 위생과의 조사에의하면 지난 팔월중의 전조선 전염병 환자의 발생수는 일천팔백삼십구명으로 작년동월의 일천사백구십사명보다 삼백사십오명의증가를 보이엇고 도사자도 팔월중에 삼백륙십일명으로 역시작년보다 구십명의 증가이다 그러나 일월부터 팔월까지의 루계를보면 금년에는 팔개월동안에 환자수는 일만이천 오십삼명으로 작년에 비하야 십분이집일백구십사명의 격증이고 사자역시 금년에는 이천이백륙십명으로 작년보다 오백 사십구명의 증가를 보이엇다 병종별로보면 팔월중에 장질부사의환자 [illegible] 최고로 사자는 일백 이십이명이고 일월부터 팔월까지의 루계를보면 장질부사는 환자총수가 실로사천륙백사십삼명의 다수로 그사자도 륙백륙십 륙명에달한다 그다음은 적리(赤痢)병으로 팔월중순에는 환자는 칠백사십구명에 사자일백 오십명이고 팔월까지의 루계는환자이천륙백 삼십일명으로 사자는 사백팔십사명의 다수에 달한다고한다

◇永興德新校 함남 영흥군(永興郡)사립덕신학교(德新學校)생도 삼십명은 김원극(金元極)선생에게 인솔되여 사일에 본사의 신문제작의 실제 상황을 견학하엿다

綜合競技의序幕
陸上競技大會
競技種目과諸般規定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六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의 序幕인 陸上競技는 二十二日 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릴터인바 競技種目과參加規定은다음과갓다

◇種目

◇第一部 百米、二百米、四百米、八百米、千五百米、五千米、萬米、四百米繼走、八百米繼走(中學에限함)、千六百米繼走、障害競走…一般에限함

◇第二部 走高跳 砲丸投 走幅跳 槍投 三段跳 圓盤投 棒高跳 高障碍 低障碍 鐵鎚投

參加規定

▲參加金 五十錢也必히參加申請時에添付함을要함

▲申請期日 十月十七日午後四時까지 體育會로

▲參加種目 一人二種目에限함(繼走는此限에不在함)

中等庭球大會
中東連覇
二高決勝에惜敗

延專主催 第六回全朝鮮中等校庭球大會決勝戰은 五日午後二時二十分부터 郊外延專코-트에서 昨年度優勝校인 中東學校對第二高普의 相對로열리엇다 第一組부터4…3의 猛烈한 接戰으로 二高軍이勝捷後 第二組에드러가또한 緊張한께임으로 4…3으로 中東軍이이겨서 伯仲之勢를 보이드니 南軍大將組의 對戰은 4…1로 二高敗하야 第二라운드부터 閔丙玉·崔根尙組가 正陣을 展開하야 第三라운드까지 兩軍이 抵抗하엿스나 드디어二高軍敗退하니 中東軍 이에連二次優勝을獲得하엿다

◇決勝戰 【二高】【中東】勝

二高			中東	
○	閔丙玉 崔根尙	4…3	朴仁植 鄭斗千	×
×	李正基 朴俊成	3…4	申東一 鮮于銘	○
×	李文淳 李鎬基	1…4	安秀善 李基用	○
○	(第二라운드) 閔丙玉 崔根尙	4…3	鮮于銘 申東一	×
×	(第三라운드) 閔丙玉 崔根尙	1…4	安秀善 李基用	○

延專醫專野球
4…4 無勝負
日沒로七回까지

延禧專門對京城醫專의野球戰은 五日午後四時三十五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龜井(球) 富田 上村 齋藤四氏審判下에 醫專先攻으로 開始되바 定期對抗戰에 延專이 連二次得勝한뒤이라 醫專은 雪辱의 好機를 마즌듯이 二回에 醫專敵失로 二點을너허 氣勢를 올리드니 三回에延專無敵히三點을 回復하야 도리혀 一點을리-드하자 醫專四回에 또一點을加하야 同點되엿다가 五回에延專一點을어더리-드、六回에醫專一點을挽回하야 四對四同點되여 七回까지에이르러 日沒로 因하야 『골드게임』되니 無勝負로마치엇다 (閉戰六時十二分)

	一	二	三	四	五	六	七	計
醫專	2	0	0	1	0	1	0	4
延專	0	0	3	0	1	0	0	4

【醫專】 [illegible]

【延專】

7	元小吉
9	[illegible]朝華
2	金日塔
1	吳潤煥
8	李辛得
5	李東驛
4	鄭誠福
6	安炳模
3	邊聯濟

◇中等庭球에 優勝한 中東學校軍

一般繼走도擧行
新種目競技
人氣集中한

第十二回 京城府體育會主催의 第一日京城陸上競技聯盟主催의 府內男子一般繼走及 新種目競技大會는 五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린바 朝鮮서는처음을 밟는大會인지라 相當한人氣를이끌고 同三時半에 閉會하엿는데 이날의戰績은 다음과갓다

【一般二百米】1金仁植(遞信)二三秒七 2金鍾民(아俱) 3鄭誠福(遞信)
【中學一年二百米繼走】1京工 二四秒七 2培材 3龍中
【中學二年四百米繼走】1京工四九秒九 2普成 3龍中
【中學三年四百米繼走】1養正四九秒五 2普成 3龍中
【一般一千米】1柳長春(遞信)二分三三秒八 2崔長鎬(遞信) 3鄭壽吉(京城)
【中學一年四百米繼走】1培材五〇秒八 2普成 3龍中
【中學二年五百米繼走】1京工一分一秒七 2普成 3養正
【一般五百米】1三好(遞道)一分十二秒五 2韓範錫(아俱)3崔永賚(龍中)
【中學三年八百米繼走】1養正一分四二秒五 2普成 3龍中
【中學四年八百米繼走】1普成一分四八秒四
【中學五年八百米繼走】1養正一分四三秒二 2龍中
【一般六百米繼走】1아俱(金煥民·永械 金相鎬 韓範錫)三分四九秒六
【一般三千米】1柳長春(遞信)九分四五秒四 2鄭壽吉(京城)3梁潤煥(京城)
【中學四年障碍繼走】1龍中二分一三秒三 2普成
【兩手砲丸投】1張聯[illegible](養正)右九米九五 左七米九〇 計十七米八五
【一般三千米競步】1柳海駿(中央日報)2梁潤煥(京城)3金斗仁(京城) 朝鮮最初競技
【中學五年千六百米繼走】1龍中四分一三秒二
【一般千米繼走】아俱(金、安、柳、韓)二分七秒二

盛況이든 朝鮮八週年記念拳鬪會

遺産十萬圓을두고
叔姪間裁判騷動
釜山鄭氏家蕭墻之變

【釜山】봉천시상부지 오위로 (奉天市商埠地五緯路)에 잇는 룡광의원(龍光醫院)원장 정석용(鄭錫鎔)씨는 목순구(睦順九) 삼촌삼(杉村)랑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부산부초량정(草梁町)사백사십팔번지에사는 자긔숙부인(叔父)정긔두(鄭箕斗)부부와 경상합동은행(慶尙合同銀行)등을 상대로 가독상속회복 토지소유권 이전등긔급 등긔말소청구의 소송(가격약십만원)지난 삼일부산지방법원민사부에 제긔하야 유산을둘러싸고 혈족간의 쟁투를 개시하게되엿다는데 그리유는원고는 대정십년구월에 사망한 정구식(鄭九植)의 장손(長孫)인바그의 실부정의두는 그전에사망하얏슴으로그조부인 정구식이가 사망하면전긔원고가 맹연히 가독을상속할순서인데 원고는 그조부가사망하기전인 대정구년 의학연구차로 미국에 류학하러 간후 조부가 중풍병으로사망하게된것을 긔화로 그조부의인장을 사용하야 부산등래 등지에서저당권 설정을하고 또조부가사망후는 피고가 가독상속자인것처럼 호적상수속을 하야현재에이르럿는데 그시유산은 부산부내토지 약오만원 추수오백석하는 전답과 현금등합 십일만여원이라한다 원고가 대정십일년륙월에 미국으로부터 귀국하야 남만주철도회사의 촉탁의로 도만하얏는데 지금으로 부터약오년전에 부산에와서 피고에게 루차 가독상속 회복소유권이전등긔등긔 말소의 청구를하얏스나 듯지안홈으로 그와가티 소송을 제긔하얏다는데 일반은혈족간의 계장입으로그결과를주시하고잇다

聯隊에傳染病

지난 이튼날 용산칠십구련대(龍山七十九聯隊)에서 보병(步兵)한명이 인두(咽頭)『리프테리아』란 전염병에 걸려 신음하는것을 발견하고 크게소동해서 그환자를 위술병원(衛戍病院)에 수용하는한편 대내(隊內)를 대소독한후다른 명자들에게 전염될가하여 경계중이라한다

山田兵務課長 自刎

【東京電話聯合】=陸軍省公表= 전륙군성 군무국 병무과장(兵務課長) 산전대좌(山田大佐)는영전(永田)중장 조난사건이래 당시의 병무과장으로서의 직무관계상 책임을 통감하고 오일아츰자택에서 자문햇다한다

兼二浦의發展相
地價도三割乃至四割의暴騰
九個月間七百戶突破

【兼二浦】일본제철의 사업확장등으로 발전을 거듭하고잇는 황해도 겸이포(兼二浦)는 실로괄목할만한바 지난 일월부터 구월말일까지의 가옥신축을 조사한바에의하면 합계 칠백오호의 가옥신축을 보앗다는데 이에 따라 또한 지가도 상당히 폭등하여 삼할내지 사할의 등귀를 뵈이고 잇스며 본정통(本町通)등 시가지에는 평당백여원이란 놀랄 소식을 전하고 잇서 세궁민은 주택난에 졸들리는등 철도(鐵都)겸이포의 발전은 근래에드문 급템포라고한다

日曜講話

◇英耕講習院 午後三時 救世軍樂隊
◇覺皇寺 午前十一時 如是의妙法 朴漢永先生
◇南大門外敎會 午前十一時 悔改의理致 彼得 牧師
◇向上會館 午後七時半 勉勵會 人生의現實相 高承業 氏
◇中央基督靑年會 午後三時 是也非也 鄭泰熙 氏
◇貞洞敎會 上午十一時 福音을널니傳播하라 金鍾宇牧師 下午七時半 復興說敎 韓信一牧師
◇尙洞敎會 午前十一時 能치못한것이업다 邊永瑞博士 午後七時 참信仰의人 馬慶一先生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宣敎事業에對하야 洪愛施德先生 午後七時半 非常時의基督靑年 沈明燮牧師

驚馬狂奔으로
二名이나重傷
자동차에놀라마차말의소동
昨夕鍾路三丁目의大騷亂

이지음가을바람에 말이살진까닭인가 마차끄는말이 무궤도식으로뛰는바람에 사람이 둘식이나 중상을입은 사고가 발생하엿다 오일오후다섯시오십분경 부내와룡동(臥龍洞)일백륙번지 마차꾼 리래원(李來源)(×)이돈화문(敦化門)엽헤 마차를세워노코 짐을 내리든중 말이자동차소리에 놀래여 뛰어달어나 종로사정목네거리를거처 황금정사정목을 향하여달아나든중 례지동(禮智洞)부근에서마친전거를타고가던판 수송동(壽松洞)일백사십오번지 인쇄업박명호(朴明浩)(×)를 너머트리여 노진당(盧鎭當)을업으키고 그여세로 또주교정(舟橋町)으로 달어나 주교정 정류장압근처에서 그곳을지나든 려자동일백구십삼번지 정한승(鄭漢承)(×)을 너머트리여 중상을입힌후 또달어나는것을 황금정사정목근처에서 겨우붓잡엇는데 중상을당한 전긔두명은 전치까지 약십여일을 요하리라한다 이때문에 종로서편내인 와룡동으로부터 동대문서편내를지나 본정서편내까지 세경찰서관내를달리는바람에 교통망은 일시대혼란을일으켯섯다한다

明大8 法政4

【東京電話聯通】東京大學野球리그明法第一回戰은 五日午前十一時三十五分부터 神宮球場에서 法政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八A對四로明治勝 閉戰午後一時四十分

◇投捕 明大(山脇 櫻井) 法政(鶴澤 森近 藤田竹內)

										計
明大	0	0	0	2	6	0	0	0	A	8
法政	0	0	0	1	0	0	3	0	0	4

朝鮮拳鬪俱
記念拳鬪盛況

朝鮮拳鬪俱樂部主催의 創立八週年記念拳鬪戰은 五日午後二時부터 團成社에서 同俱樂部長 成義慶氏의 開會辭가잇슨後 競技의勝이엿던바 結局 七對五로 白軍이 勝捷하엿다

【紅軍】【白軍】 [illegible]

女子籠排球豫選
女高、進明、同德各勝

朝新主催의 第十三回全朝鮮女子올림픽大會 排籠球豫選은 五日午後一時半부터 第一高女『코ー트』에서 열리엇는데 다음戰績과가티 籠球部에는 進明女高、京城女高、一高女、二高女等이 準決勝에 남어잇스며 排球部에는 同德女高、二高女、一高女가準決勝戰에남어잇서 今六日午前九時부터京城運動場에서 雌雄을決할터이다

◇籠球部◇

淑明 15	8…10	7…6	16	二女
進明 23	10…6	13…6	12	女師
女高 20	7…0	13…2	2	龍谷

◇排球部◇

進明 2	21…17	13…21	21…17	1	淑明
二女 2	21…18	21…18		0	龍谷
一女 2	21…18	21…18		0	女高普

平壤女高對同德女高戰은 平壤女高棄權으로 同德不戰一勝

養正의猛擊
京商零敗
中等리-비戰

朝鮮神宮競技中等學校리-비第二回戰、京師對培材 京商對養正의二試合은 五日龍山球場에서 擧行한바 다음과가티 養正及京師兩軍이勝捷하야 來十五日에 北朝鮮代表 南朝鮮代表와 準決勝에서 對時케되엿다

京師 9 (3 6 — 0 3 0) 3 培材
養正 19 (8 11 — 0 0) 0 京商

孝昌野球優勝
龍山普校惜敗

京城府內聯合普通學校 軟式野球리-그決勝…孝昌普校對 龍山普校戰은 五日午後二時부터 京城球場에서 崔仲乙(球) 安藤、大森(壘)三氏審判아래 孝昌先攻으로開始한바 兩軍자못悲壯한接戰을演하며 延長戰十一回에 드러가 孝昌軍一擧二點을 어더結局四對二로孝昌軍이 連二年優勝하엿다(閉戰四時七分)

												計
孝昌	0	0	0	0	0	1	1	0	0	0	2	4
龍山	1	0	0	1	0	0	0	0	0	0	0	2

【山龍普校】

1	金任燮
9	鄭光鎬
2	閔龍文
3	張鎬成
6	崔英植
4	金景雲
7	李孝昌
8	張福龍
5	金[illegible]

孝昌		山龍
42	打數	39
6	安打	4
0	犧打	0
9	三振	12
2	四死	4
5	盜壘	2
2	過失	1
4	殘壘	6

【孝昌普校】

4	崔錫煥
2	金榮培
6	李七星
3	片德源
1	朴用羽
5	柳根熙
9	河順龍
8	朴魯俊
7	金成萬

▲二壘打 鄭光鎬 金任燮(龍山) 金榮培(孝昌)

滿俱6 朝鐵1

滿俱對朝鐵 定期野球第二回戰은 五日午後三時二十五分부터 龍山球場에서 滿俱先攻으로 開始하엿는데 結局六對一로 滿俱再勝 閉戰五時七分

◇投捕=滿俱(阿部 五十嵐 宇佐美) 朝鐵(山上 稻垣 中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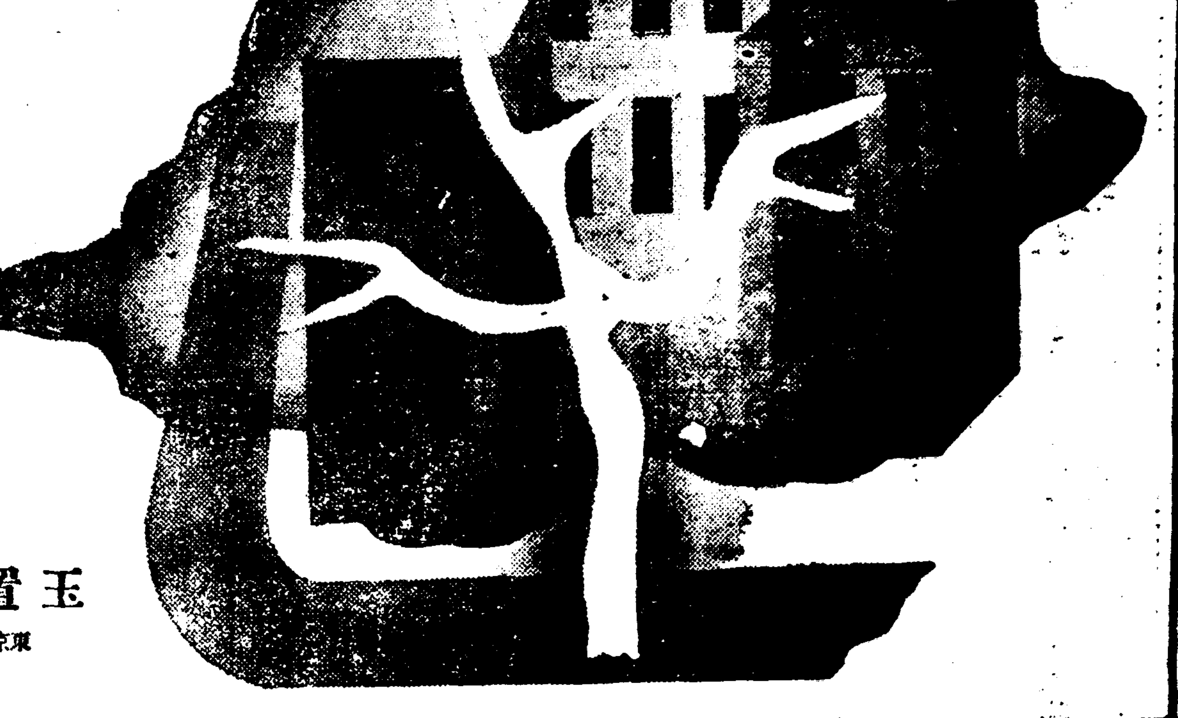
										計
滿俱	0	0	0	0	0	0	0	1	5	6
朝鐵	0	0	0	1	0	0	0	0	0	1

今日의運動

▲野球=京城府內聯合靑年團決勝戰(午前十時)龍中對京商(午後零時半)滿俱對靑葉(午後三時)以上京城球場
▲씨름=府內一般씨름大會(午前十時)京城運動場
▲陸上競技=全朝鮮女子올림픽大會 午前九時 京城運動場
▲庭球=府內實業聯盟軟式庭球大會 午前十時 京城運動場
▲排籠球=全朝鮮女子올림픽大會準決戰及決勝戰 午前九時 京城運動場
▲卓球=全朝鮮女子中小學校卓球大會 午前九時 東大門小學校講堂
▲運動會=京城帝大豫科 午前九時 淸凉里同校運動場

恐怖할寒冷
이迫頭하엿다!

치위는 痔疾에무서운 冷症을준다。
冷症은 痔疾發生의 原因이며 疾患增惡의 契機다。
小松痔疾藥과 協力하야서 이 敵의
共同戰線을 펴지안으면 안된다!



總代理店 玉置合名會社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一丁目

併用藥 小松痔退座藥 小松痔快丸

小松痔退膏

小松 痔疾藥은 小松痔退膏와 小松痔退座藥及小松痔快丸의 三種이잇다 內痔核에는 痔退座藥을 外痔核에는 痔退膏를쓰고 痒痔脫肛痔瘻에는兩劑를 倂用하며 肛門膿瘍에는 痔退膏를써서 良効를나타낸다 出血을한症狀에는 痔退膏가効果를 나타낸다 (兩劑)다優秀한

鎭痛 作用을發揮하야 激烈한 苦痛을緩和하고 또 搔痒感을 근치게한다 더구나 炎症을 鎭靜하고 創傷을 收縮하며 殺菌作用을 하면서 新鮮한 肉芽를 恢復식혀준다 痔快丸은 軟한 通便을보게하고 痔疾을 排除케한 內服藥으로 各種의 痔疾에 가장有効한 倂用藥이다

定價 二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全國有名藥店에잇슴

痔疾治療 書進呈!
痔疾과가치 여러種類가만코 症狀에 變化잇는病을 征服하기에는 正確한治療知識이 必要하다 下記總代理店에 葉書로 申込한분에는 痔疾에關한知識을 詳述한 痔疾治療書를 無代進呈한바 痔疾患者의 必讀書로서 好評이다。꼭一讀하시라。

主効 痔核 痔瘻 裂痔 脫肛 痔出血 肛門周圍炎 (肛門糜爛)

地方論壇

義英校의將來를 順川人士에呼訴

順川支局 一記者

西鮮山東麓에 옷둑소사 順川一帶를 統轄하고잇는 義英學校는 우리朝鮮三千里에 新敎育의必要를웨치는소리와함께 三十年이라는 悠久한歷史를가지고 [illegible] 敎育機關으로 [illegible] 아니날까지 꾸준히나려온 [illegible] 敎育機關이다

그동안 男女數百名의卒業生을 우리社會에내어보내엇스며 現在에 生徒數가 二百五十名에 達하엿스니 實로 우리社會에 莫大한貢獻이다

義英이過去에잇서서 [illegible] 貢獻한바 [illegible] 누구나 다아는事實이거니와 우리는 過去보다도 來日에 더욱 큰希望을가지는바이다

大槪어느社會나 어느團體를 莫論하고 成長과發展이잇슬것이요 [illegible] 退縮이업서야 할것은 이미 세상사람이 [illegible] 업는것이다

이제우리의期待가큰 義英學校의 內容을檢討하여보다면 첫재로 [illegible] 設備의不完全 [illegible] 生徒의 [illegible] 外에도 [illegible] 敎育을 [illegible] 缺陷이 不少하니 [illegible] 우리社會에 [illegible] 六年制로 [illegible] 一大問題이다

[illegible] 우리社會에도 [illegible] 世界人과가 [illegible] 나가려면 [illegible] 우리子女敎育 [illegible] 우리는 이民族의將來를 [illegible] 順川人士여! 우리도 [illegible] 義英學校의將來를 [illegible] 順川의 將來에잇서서 入學難은 [illegible]

[illegible] 入學志願者가 [illegible] 二百에 入學된者가 [illegible] 百五十名에 入學된者가 겨우 八十名이고 [illegible] 이 義英學校의 [illegible] 第一線으로 [illegible] 物質的으로 [illegible] 文化의 [illegible] 하기를 [illegible] 力主張하는바이다

鰮魚繼續豊獲으로 咸南沿岸에大活況

九月末現在漁獲高六十萬樽

一日七萬樽의超記錄

【咸興】 함남도연안의 금년 온어획(鰮魚獲)은 미증유의 대풍획으로시 작년의 삼배나 격증하엿다함은 그보한바어니와 그후에도 점점더 호황을 보이여 지난달 삼십일까지에는 일일평균 칠만통(樽)의 대풍획으로 구월말현재 륙십칠만 이천사백이십륙통으로서 전년동기의 십팔만칠천 륙백사십통에 비하면사십팔만여통의 대증획으로 약삼배반이나되다 또그우에생온(生鰮)의 가격이 한통에이원이십전온유(鰮油)일관에 이원구십전으로 작년동기에비하여 생온은 일순(樽)에팔십전 온유는일관에 일원의고등을 뵈우며 도작년으온 일순(樽)에서 륙승여의 온유가 나든것이 금년에는 팔승이나난다는데 동회 가격고등 등 세가지호조로서 함남도어민은 회약하여마지안는다고한다

裡里邑京町에 때아닌洪水化

【裡里】 지난 사일 오후사시경 리리읍 경정동(裡里邑京町)에 리리금융조합 압네거리에서 상수도(上水道) 철관(鐵管)으로부터 수도물이 새여나오기시작하야 방금 공사중에잇는 시가지 포장공사(鋪裝工事)에까지 물이 고이여잇는것을 공장장에서 사용하고잇는 「로-라」가 그곳을 통과하려는 도중 (로-라의 重量은八噸)그부근의 지반이 허무러지는 바람에 「로-라」는 땅속으로 바혀드러가고 상수도 철관이 터지게되여 근방 일대는 때아닌 홍수가 소사올르기시작하야 일시는 교통이 차단되야 대혼잡을일우웟섯는데 윤수도계에서는즉시 저수지로통지하야 배수를 근치고 「로-라」를운반하에 내노라고 로력을하엿스나 아즉것 꺼내지못하엿다하며 압흐로 사단대항연습(演習)의 긔일이 축박하여가는 오날에 도로수선을 재촉할에도불구하고 오히려 도로가 파괴되엿슴으로 당국자측에서는 전긔 파괴된 구분을 수선할것부터 준비중 이라하며 파괴된 면적은 넓비(廣)가 이간(二間)이요 기리(長)가 십간(十間)가량이라고한다 그리고 전긔 상수도철관으로부터 물이새여나오게된원인은 방금 윤수도계에서 조사중이라는데 추측컨대 철관이 약하엿기때문이나 아닌가한다고한다

立稻差押狀雪飛

全州地方法院接收件數

—벌서六十餘件—

【全州】 비지땀을흘려가면서 지여노흔농사가 채 성숙되기도전에 논구석에는 청천벽력가튼 입도차압의「딱지」가 사방에꼿처잇게되엿다 이제전주지방법원집달리사무소에 지난사일까지 접수된 입도차압건수가 오십륙건이나된다는데 그들중에는 대개가 구채(舊債)가 만타하며 그가운데는 금년농사비용으로 채용된것도잇다는데 아즉 현상으로는 작년현재에비하야 매우감한다

尙州支廳에서도 二十餘件을接收

【尙州】 추수기를 압둔 상주군하에는 벌서부터 채귀배둥의잡동으로 대구지방법원상주지청에 입도를 차압하기위하야 면집행 안이십사건을신청하야 벌서절정이되엿고도 십여건이라한다 그런데 그채무자의 전부는 소작을하는 세농계급이라하며 이압류로는 차압건수가 증가할모양이라는데 피와땀으로 지은 농사의대개는 채귀의손에 올키리라고한다

敎皇大使來邱 觀迎準備奔走

【大邱】 평양에서 개최되엿든천주교(天主敎)일백오십주년긔념식에 참렬하엿든 동경주재로마법왕(羅馬法王)사절일행은 오는칠일평양에서 출발하야 대동오후팔시사십이분급행차로 래구하야 다음의일정으로 대구부내 중요한 곳을 시찰할터이라는데 대구천주교에서는 교황대사(敎皇大使)환영준비에 방금 분망중인바 환영당일은 경상남북도일대의 신도가 만이 참석하리라한다

振綱樓落成式에 白日場을擧行

【南原】 남원행교유림중에서 금춘부터 시작한 진강루(振綱樓)가 저간준공되야 오는음구월이삼일오전열시에 낙성식을거행하고 계속하야 백일장(白日場)을보이기로되여 제반준비에분망중이라 한다

龍興里一帶에 雨雹降下

【興南】 삼일오후두시반부터 뜻밧게 폭풍이불며 공압마긔한 우박이 함주군 운남면 룡흥리일대를 엄습하여 때마츰 신축중에 잇는 조질회사계통의 룡흥공장건축장은 극혼란상태를 이루어섯스며 농작물에 피해되는 곳에서 … 다 이무리와 폭풍은 약십분후에 끄치엿다고한다

滿洲行各用雜貨 釜山埠頭에山積

臨時列車徵發輸送

【釜山】 요지음 일본내지로부터 조선 만주등지에 가는 겨울용 잡화물이 매일이천여돈식 부산항을 거처서 가는데 그로 말미암아 부산부두는 화물의 대홍수이라한다 그래서 부산철도사무소에서는 그화물을 수송하기위하야 림시화물렬차를 운전시키고 잇는데 날이갈수록 화물이 만하서 부산에는 화물차가 부족하야 근년에 처음보는화물의 대범람이라한다

長城郡地主懇談會

【長城】 전남 장성군(長城郡)은 금번의 한재를 톡톡히 당하야 핑주세무서관내로는 제일 면세지(免稅地)가 만타는데 이에 대하야장성군에서는 지주간담회를 지난 구월이십구일 오전십시에 군수리용수(李鏞洙)씨 사회와상야소작관(上野小作官)립회로 개최되엿다하며 또다시 지난사일에 각면장(面長)권업서긔(勸業書記)들과 각면경찰관주재소원들을 회집하고 산업(産業)부업(副業)장려들을 위하야 협의한바 잇섯다한다

碣機의墜落으로 鑛夫四名即死傷

二百餘尺地下로드러가다가

井邑과升鑛山의慘事

【井邑】 남조선에 잇서서 칠십만원의 거액을 투자하야 특별전긔장치까지하여 대규모적으로 활동을 개여내고잇는 동양척식회사(東拓)경영인 승금광(升金鑛)에서는 지난사일오후 [illegible] 동금광에 종사하고잇는 광부네명이 입갱하려고 「마키」(碣機)를 타고 굴속에 드러갈다가 타고잇든 마키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백척이나되는 지하에 떠러저서 일명은현장에서 즉사하고 세명은 생명이 위독함으로 동광부소 야촌주임(鑛務所野村主任)과 광부사십여명이 「추럭」에 실고 정주읍(井州邑)내에 드러와 정읍삼남, 딴구세병원에 한명식 입원식여 응급치료를하엿스나 지난사일 새벽한시경에 두명마자 절명이 되여버리고 한명만 사러잇서 치료를 밧는중인데 이참변에 대하야 갈토자의 무책임을 비난한다고 한다 사망부상자의 주소씨명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本籍 全南光陽郡光陽面竹林里 死亡 鄭寶中(二〇)
同 光陽郡鳳岡面石山里 死亡 黃貞峰(三一)
同 光陽郡光陽面井山里 死亡 李應植(三七)
同 井邑郡梨坪面倉洞里 重傷 車陳燮(二〇)

野村主任談 금번의 사변은 실로 천만의외올시다 그리고 불행의 책임에 잇서서는 사변을 당한 광부들이나 갈독을 좃든이 못하엿든 우리나 상반상반인동시에 유족들에게 유감이 업도록 처리할작정이외다 운운

金塊를竊取하야 豪遊타가被捉

【新義州】 평북귀성군관서면조악동(龜城郡館西面造岳洞)삼성광업주식회사(三成鑛業株式會社)[illegible] 광부원명석(元明錫) [illegible] 창면대유동 [illegible] 길수일(吉[illegible]) [illegible] 변상일로부터 금년구월까지 오실동회에 공하야 각각자긔가종업하는 금광으로부터 순금한관오백륙십몸메를 도취하야 이것을 태천군(泰川郡)사는 리춘경(李春景)외일명에게 오천륙백팔십원을 밧고팔아먹엇다 전긔 두명은 이돈을 가지고 신의주로 드러와 매일 흥유를 하고잇든중 신의주경찰서에 탐문되여 지난이일 모다 체포되엿다고한다

各校秋期運動會

◇木浦第二公普校—十月六日
◇木浦룸비니學園—十月七日
◇高城郡[illegible]公普校—十月六日
◇同 杆城公普校—十月十九日

三十餘名을留置

尙今도繼續活動

釜山署의特別警戒網

【釜山】 국보=시정긔념과 륙군대련습(大演習)으로 경남도 경찰부에서는 관하각 경찰을 총동원하야 특별경계를 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부산경찰서와 부산수상 경찰서에서는 이동경관삼십여명을 동원하야 관부련락선각 긔선급 긔차에 승입시켜 엄중이 경계하고잇는데 지난 구월 삼십일밤부터 십일날까지에 소위 요시찰인 불온인물로 지목되는자를 삼십여명을 검거하야 부산경찰서에 류치시켜서 류치장은 대만원이고 또부산수상경찰서에도 조서으로 입항하는 관부련락선에서 수상하다고인정하야 불심심문을 받는자가 매일수십여명이나된다

錦洲許先生 儒林葬擧行準備

【進永】 금주허채선생(錦洲許埰先生)은 한학계종장(漢學界宗匠)으로 학식과 덕망이 놉흐며 사계에 지도와 공헌이 만튼바 금년구월에 경남밀양군단장면우거(慶南密陽郡丹場面寓居)에서 칠십팔세를 일긔로 별세하엿는데 각지 유림들은 이장식을 류림장(儒林葬)으로 하기로 하야 십월육일에 김해군향교에서 각계인사가 모히어서 이번장례에 대한 절차를 협의하리라고한다

北栗東拓指導員 詐欺橫領으로被訴

三十餘小作人等連署

【沙里院】 여지업는 빈농에서헤매이고잇는 농민의 등골을 빨아먹는 흡혈귀(吸血鬼)가 아즉도 농촌에 남어잇다

황해도 재령군 북률면(載寧郡北栗面) 석해리(石海里) 장하리(長河里) 북지리(北芝里) 동신흥리(東新興里)의 동척소작인등은 동척북률출장소의 지도원(指導員)이며 석해창고(石海倉庫)관리인인 로달순(魯達淳)을 상대로 삼십여명이 련명하야 해주 리긔호(李基浩)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재령경찰서에 사긔횡령으로 고소를 제긔하엿다

이제 그고소의 내용을 알어보면 피고소인 로달순은 대정십삼년부터 석해리 동척토지의 소위 지도원이란 명목을 가지고 그것을 권세로하야 관내 소작인에게 무리한횡포와 농락을 감행하여왓는데 그가 소화시년에 석해창고의 관리인을 겸하게되자 그것을 조흔긔회로 매해 동척에서 소작인에게 대부하야주는비료등을 진남포(鎭南浦)청목조(靑木組)상공조와(商工組)를 통하야 운반해오는 석해창고에하륙(下陸)입고(入庫)에대한 하청부(下請負)를 마타가지고 비료한가마에 이전내지삼전오리의 료금을 령수하고는 관내소작인에게 부역을시켜 배급할뿐아니라 비료대금 수납시에는 오히려하륙입고의 입금을가산하야 증수함으로 결국 하륙입고의입금은 전긔피고소인이 사취한것이 금번에 판명되여 고소를 한것이라는데 이와가티 사취한것이 총액 삼천여원에 피해자가 오백여명에 달하야 당시농민들의원성이비등하다고한다

原住民反對도緩和 長項港群山에合併

開港場을建設計畫

【群山】 과반총독부에서대안이장항(長項港)을 군산항권내(群山港圈內)로포함하야 동항을개항(開港港)으로 취급을 할의향을 발표하자 장항항에서는 장항이 지금까지의 발전을 보게 되엿슴은 장항항으로 서의입항수업는 희생을 하야왓슴에도 불고하고 도산항의 례속(隷屬)이 되는다함은 실로 용대못할일이라하고 필사적 반대로 그의실현이 중간에 최절되얏섯던바 결국 총독부의 완화운동에 납득이 되야 동항은 군산항권내에 포함이되기로 하얏다한다

二審에敗訴 再審理로勝訴

★……오레동안世人의耳目을끌든 山淸尹氏家離婚訴의解決

【大邱】 어린딸과 아들을 다린 부부가 대구복심법원 재상호법정에 나타나서 리혼소송의 비극의막이 열니엿다 그주인공은 경남산청군삼장면(慶南山淸郡三壯面)공립보통학교 훈도윤성현(尹性鉉)(三七)은 칠년동안 동거하야 오든동안 일남일녀(一男一女)를 두게되든 강현수(姜鉉壽)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리혼소송을 제출한바 일이심에서 피고강현수가 패소되자 피고강현수는 이에불복하고 고등법원(高等法院)에 상고하엿든바 동법원의 판결서는 원고가 학교교원의 입장으로서 용납할수업는주색(酒色)에 빠저 잇슬뿐더러 평소의 빈한한 가정에서자라나서 처가의 부호를 긔회삼아 금원을 물괴가리 탐용한끄테 처에게 수십차나 금전을강청함으로 그처는 친정과 상의하고 남편의 요구를 수십차나 드러왓스며 그처는 남모를 가삼을 태우든 끄테그남편의 개준하기를 축원 하엿스나 종래 개준치아니함으로 몃차례 싸움한것을 구실로 리혼소송을 정당치못하다하야 원고 윤성현의 리유를 파괴하고 대구복심법원에 돌려보내여 재차심리하게되여 지난사일 대구복심법원 제삼호법정에서 개정한바 칠모르는 어린일남일녀와 그어머니와 아비가 출정하엿다 개정즉시 판사로부터 원고를불러 벼락가튼 호령으로 리혼하려는 리유는 인정할수업스니 원고자신을 위하야 리혼소송장을 취소하고 원고의장래를 위하야 화해하라는 엄숙한 권고에 원고윤성현은 진심으로 개준하엿슴인지? 화해에 승락하엿슴으로 비운에싸엿[illegible]

宜寧署突然活動 青年五名을檢擧

書籍多數로同時押收

【宜寧】 지난 이십일밤에 경남의령 경찰서고등계에서는 돌연 활동을 개시하야 청년사명을검거하고 따라서 가택수색까지하야 서적다수를 압수하고 또다시 지난 삼일오전에는 포로상 중국인 소서항(所[illegible])을 검거하엿다는데 사건내용은 절대비밀에 부치므로 자세히 알수업스나 추측에 의하면 근일특별경계에대한 예비검속인듯하다고하는데피검자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徐鋼俠 金潤秀 金詳海 金三淑等四名

江西公立普校 學級增設運動

【江西】 평남강서공립보통학교는 지금부터 이십여년전에 개교한이래 졸업생을 이십사회에 수천명을 내보내게 되엿스며 아직도 학급이 부족하야 입학지원자의 삼분의일도 입학치못함을 항상유감으로 생각하고 수년전부터 당지 면장 오희철씨와유지검진수(吳熙撤金鎭秀)량씨 [illegible] 림시학무의원회를 개최하고 사학급을 증설하기로 한바 늣저도 명년신학긔전으로 준공되리라는데 이제부터는 강서보교 입학난이 좀완화되리라고 한다

起訴猶豫되엿든 頌德碑橫領事件

民、刑事로다시提訴

【咸興】 북조선 유일의 부호인 함흥부 황금정(黃金町) 한시은(韓時殷)이가 함흥시내 삼천여 상민들이 영원히 긔념키위하여 건립하엿든 관찰사 림한수(林翰洙)와 중군(中軍)윤모(尹某)의 송덕비를 횡령하여 함흥로자긔 조선의 묘에옮겨 세웟다고하여 함흥상민의 분긔한배되여 상민대표로부터 고물파그급 횡령죄로 고소를제긔하엿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동사건은 함흥시민의 주시리에 결국 긔소유예의 처분을 바덧든바 사건은 이로써 끈치지안코 당시의 관찰사 림한수(林翰洙)의 직손인 림태경(林台卿)으로부터 경성지방법원에 전긔한시은(韓時殷)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긔하여 아연시민의 주목을 재연케하든바 이번에는 당시중군(中軍)의 직손녀(直孫女)인 경성부 앵정정(櫻井町)윤모(尹某)로부터 횡령죄로 함흥경찰서에 고소를 재긔하엿는데 이중소송의 민형사재판소로 금후동사건의 진전이 극히주목된다고한다

雇主側讓步로 罷業解決

【元山】 루보=한날로농회사포단제인공장(本町)의 삼십여명은 지난사일오후부터 임은인상등의 요구조건을 고주측에 제출하고 일제파업을 하야온바 그후고주측인 원산가구제조업 조합에서 양보하야 직공들의 임금인상요구는 대부분 승인하야 문제는 원만해결되는듯 하더니 지난사일에 돌연한교섭에서 종회원이외는 금후절대사용치못할것이라는 새로운 요구가잇서서 고주측의 절대반대로 문제는 다시 결렬되여 의연히 파업은 계속하든바 다시 쌍방이모혀 협의한결과 고주측의전면적양보로 다음과가튼 조건미테 원만해결되여 사일부터 일제히취업하얏다고한다

一、雇主는工場內의諸設備를完全히하야 職工等의衛生上何等缺陷이업게할것
一、使用職工은 成勞會員이아니면 使用을不得함
一、職工이 不足할時는 雙方이協議하야 成勞會에서 此에該當한職工을 供給할
一、物價가 騰貴할時는 雙方이協議하야 賃金을改定할

이러케 파업이 원만해결된것은 당절긔에 처한 고주측에서 무조건하고 항로측요구를 듯게된 것이라고한다

夜間普校前提로 長期夜學을設立

龜城의文盲啓發熱

【龜城】 오만여명의 군민을 포용한 귀성군내에만도 문맹에우는자가 근팔할인 사만여명의무서운 수자가 엄존하고 잇는바 귀성군당국자 귀성교육회에서는 밤에는 공연히 부여잇는 보통학교교사와 퇴청후의 관공청직원과 지방유력청년들을 동원시겨 장래의 야간보통학교 설립을 전제로한 장긔야학회를 조직하고 지난이일 오후세시부터 보통학교에 주최자 급 각강사등 이십여명이 모여 자세한 타합회를 열고 오는 칠일부터 정식으로 개학하리라는바 일반은 만흔긔대를 가지고잇다하며 책임자와 강사제씨는 다음과갓다 한다

夜學會長 李公學 敎授會長 柯口政之助 學務係 羅相希 金兌星 潘元津 崔初得
講師 朝鮮語科 白寶洙 康龍雲 崔初得 金應秀 外二名
算術科 金寶寧 金兌星 外五名
國語科 朴應翰 潘元津 外四名

今年農糧貸付 二萬餘石

【大邱】 경북도의 농량미대부(農糧米貸附)사업은 소화팔년도부터 시작되여 금일까지 계속중인바 금년도 대부상황의 내용을들어건대 도내륙만일천 삼백사십오호에대하야 이만구천 삼백구십구석을 대부하엿다하며 작년에비하면 일백구십륙석이주럿다하며 일면대부 중계중에 사월의춘궁기에잇서서 이만일천 오백칠십삼석의 대부가 제일만코 맥수확(麥收穫)긔가 제일적다 하며 매호당대부 최고가일석최하오승이라한다

元山

金剛山探勝團募集

▲出發 十月十二日午前四時四十分
探勝地 第一隊 海外金剛 第二隊 海外、內、金剛
會費 第一隊 六圓八十七錢 第二隊 十三圓五十錢
主催 朝鮮日報元山支局

光州

徐廷權君歡迎試合

◇時日 十月八日午後四時
◇場所 光州劇場
◇主催 拳鬪俱樂部
◇後援 朝鮮、外二支局、拳鬪俱樂部

京南

金剛山探勝團募集

▲時日 出發=十月十七日午前六時四十二分 到着=十月二十日午後九時二十分
▲會費 二十圓 (探勝費全部)
▲申請所 京城新龍山梨泰院 朝鮮日報支局 往十里驛、又는 往十里大山醫院
◇主催 朝鮮日報社京南支局

皮膚チャージ (챠-지)

근질근질한皮膚病.무좀.말은옴.음부습진.땀띠等에한번試用하시요

滲透療法의 眞髓!!

더럽지안코、압흐지안흐며 皮膚의 深部에浸透하야 內部에 숨어잇는 黴菌이며 寄生蟲에 强하게作用함으로 근질근질한 皮膚病、무좀、말은옴、음부습진、땀띠、버짐、어드럭、버럭、모기、빈대等의 蟲咬의傷、面刀後가조른대等에 實로效力이납니다

三十錢、五十錢、一圓
全身用德用大瓶 五圓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振替東京一四六七
全國有名藥店에잇습

당장에 숨이끗칠듯한괴로움

천식

완고한기침에 놀라운新創見劑

「スペロイン」(스페로인)을 速히服藥하고全快하십시요

注射以上의頓服藥

「스페로인」의偉大한作用

◇「스페로인」을 頓服하면 猛烈한藥効作用을나타내어 喘息의發作을 巧妙히小便으로빼는 極心性의重要한 化學藥입니다
◇決코一時的속임藥은아니오니 아모리괴로운천식의 發作도「스페로인」의 頓服으로아조싀원케나어니즙니다
◇완고한기침이그치고담이아니나와서 咽喉가爽快히되며呼吸이잘됨니다
◇身體에 爽快한溫暖感을주어서 氣分이非常히조하지며心臟이 편하고安眠이잘됨니다
◇이외가티 有効하나모루히네나 아드레나린其他의毒劇藥의 副作用이 [illegible] 아모리 連續하야 服用하야도 人體에 絶對로無害함니다
◇發作時服用하야 두면喘息의發作이적어지어드데여 喘息이나지안토록 튼튼한體質이됨니다

「스페로인」實驗者는 効力의偉大함에놀라서 「참으로注射以上이라」 公言하고잇습니다. 어떠한천식에든지 效力이잇음으로 [illegible] 一大福音입니다. 迷惑치마시고 今곳實驗하십시요. 詳細한說明書는藥에添附

適用症 「천식」 氣管支加答兒、百日咳、感冒、神經痛、偏頭痛其他기침의諸症

藥價 「스페로인」藥價六日分一圓、十五日分二圓、二十五日分三圓、四十五日分五圓、百日分十圓 (有名藥店에有함) 藥店等는直接으로 送料前金으로 無料代金引換五十錢加

スペロイン發賣元 東亞藥園 大阪市天王寺東平野町三丁目上六 電話南四〇一五番・振替大阪七五一四番

特約店 京城南大門通新井藥房 同本町四丁目木村藥房 釜山辨天町[illegible] 平壤大和町森田藥房 大邱本町[illegible]

漁具

極上麻 五分目 二尋 金八圓也
綿投網 四分目 二尋 金十圓也
捕鳥網 三間 金參圓也

定價表進呈

漁具卸商 秋岡商會 京城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電話本局四三九〇 振替京城二一、一五六〇

두통에 シーノ (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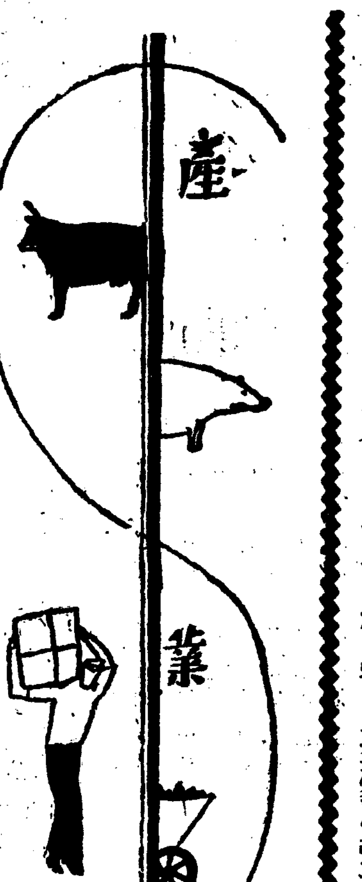
頭痛하는사람 잇스면
유리상자속에 너허두어라
頭痛이 일어든 노-신
먹어두어라
무어보다 安全第一이지

三十錢 五十錢 一圓
엇던藥店에도잇습

有利事業

[illegible]

藥信社工業所 京城光化門[illegible] 振替京城二〇三五番



四、五月에써뿌려 九月부터收穫期

蕾의二〇%가겨우棉이된다

播種부터收穫까지

特派員 李健赫

棉花는 어떠케 栽培하야 얼마나 되어야 收穫하는가? 四月末頃이나 五月上旬中에 씨(種子)를 뿌리면 六月中旬頃부터 着蕾키 시작하야 着蕾後 三十日이되면 開花하고그로부터 四十五日內外가 되면 開絮하야 收穫이 九月부터시작되여 十月、十一月로 二個月半이나 걸인다한다 그럼으로 씨뿌려 收穫까지約半年일이다 그런데 着蕾된것中에서 六二%가 떠러저 버리고 그남어지 三八%가 開花하며 開花한것도 그대로 棉이 되는것이아니라 겨우 四〇%가 棉으로서 收穫케 되는 때문에 蕾의 數로 본다면 蕾의 二〇%內外가 정작 棉으로서 예상 結果가 되는것이다 그런데 이棉作은 그리힘드는일이 아니기때문에 男子의일이라기보다 女人의 할일이다。

이제이것을 자세히 說明하면 棉은 播種後 一、二週間이면 發芽하고 平年은 六月下旬의 主幹 平均一日伸長이 一分五厘內外로 七月上旬이되면 急히 生育이 促進되어 一日의 主幹의 平均伸長이 四分內外가 되고 五分以上式上伸하는날이잇스나 七月中旬下旬이 되면 草勢가 衰키시작하야 八月에는 伸長이 一分以下는되고 下旬에는 全혀 生育이 停止된다。

着蕾는 六月中旬頃부터 시작되어 每日 或은 一兩日置隔하야 一日에 一─三個 着蕾하고 約二個月間 草丈의伸長과 共히 繼續되나 八月中下旬에는 草丈의伸長과 着蕾가 停止하는바 그停止期間은 施肥量이 적은것일수록 오랜 傾向이 잇스나 約一個月半에環境이 順調이면 十月에入하야 再次 生育을 시작하고 降霜期까지 繼續한다。이것을 第二次生育이라고 稱하는데 第二次生育을 全然 行치 안는것도잇고、發育停止期間中에도 突然 一、二日間 着蕾하는것도 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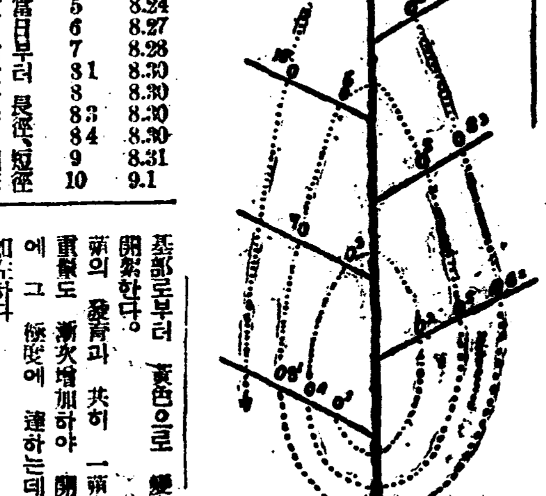
發芽後 三十五日頃이되면 地上部의 發育이 旺盛하야 枝數 三本內外、葉數十枚內外가 되며 地下部는 直根、側根共히 잘 成育되어 直根 約二尺內外、側根 [illegible] 達하는것도잇스나 上段은 五寸 乃至 一尺이라 한다。

發芽後 七十日頃이되면 地上部가 잘 成長하야 草丈이 三尺內外로 되고 枝葉이 充分 繁茂하야 만흔 蕾가 着生하고 地下部는 地上部의 伸長보다 잘 成長하야 地下部의 長은 直根과 가티 長大한것이 잇서 最長의 것은 四尺內外로 分枝根이 만어지고 側根 一尺四─五寸됨은 普通이라고 보인다。

×

棉은 發芽後 約一個月半이면 結果枝의 發生과 同時에 그先端에 着蕾하는데 着蕾로부터 開花까지의 所要日數는 風土、開花期 及 天候에 依하야 相違하나 平均日數는 대개 三十日內外이다。

開花에는 一定한 順序가 잇서 左表와如히 먼저 第一結果枝의 第一節의 蕾가 開花하고 第二結果枝의 第一節、第三結果枝의 第一節의 蕾가 順次로 開花하며 그다음에 第一結果枝의 第二節、第二結果枝의 第二節로 順次 螺形順序로 開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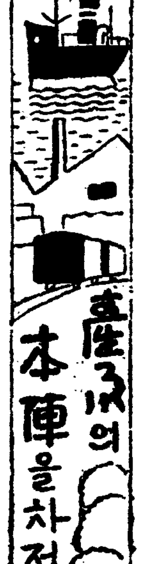


×

蒴은 開花當日부터 長徑、短徑이 모다 漸次 增大하야 開花後 三十日頃이 되면 發育이 極度에 達하고 三十日이 지나면 도리어 적어지는데 蒴이 老熟期에 入하면 蒴皮가 漸次 基部로부터 黃色으로 變하야 開絮한다。

蒴의 發育과 共히 一蒴實棉重量도 漸次增加하야 開絮期에 그 極度에 達하는데 即 如左하다

採取日 開花後	一蒴實棉重量 (瓦)	比率
十五日	〇、五七〇	一〇〇
二十日	〇、八七五	一九六
廿五日	一、二〇六	二一〇
三十日	一、八四八	[illegible]
卅五日	二、七九六	[illegible]
四十日	三、〇八八	[illegible]
四十五日	三、七七二	[illegible]
五十日	三、八八四	六七一



(八十)

自開花至開絮

開花月日	陸地棉 平均日	陸地棉 最長日	陸地棉 最短日	在來棉 平均日	在來棉 最長日	在來棉 最短日
七月二一日─七月二三日	─	─	─	四一・七	四四	三六
同二四日─同二六日	四六・〇	─	─	四一・九	四五	三八
同二七日─同二九日	四七・四	五〇	四五	四一・四	四七	三七
同三〇日─八月一日	四七・五	五四	四一	四二・三	五四	三七
八月二日─同四日	四九・九	六六	四二	四三・〇	五一	三六
同五日─同七日	五一・八	六〇	四二	四四・八	五一	三四
同八日─同十日	五三・五	六二	四〇	四六・六	五二	四二
同十一日─同十三日	五六・三	六六	四八	四八・三	六四	三三
同十四日─同十六日	五八・四	六六	五〇	五〇・四	五六	四二
同十七日─同十九日	六二・三	六九	四九	五二・三	六一	三四
同二十日─同二二日	六四・九	八九	五一	五四・〇	六三	四三
同二三日─同二五日	六八・三	八五	六一	五六・六	六九	四三
同二六日─同二八日	七七・一	九四	六〇	六二・五	七八	三八
同二九日─同三一日	八四・三	一〇一	五五	六七・三	九六	三八
九月一日─九月三日	九四・二	一〇四	七三	七三・〇	一〇六	四三
同四日─同六日	八七・八	一〇一	七一	七四・六	一〇三	四二
同七日─同九日	九三・四	一〇二	八一	八〇・九	一〇〇	四五
同十日─同十二日	八八・五	一〇一	八三	八六・八	九六	六八
同十三日─同十五日	九六・五	一〇二	八五	九〇・六	九四	八一
同十六日─同十八日	九四・〇	九九	九一	八八・〇	九〇	八六
同十九日─同二一日	─	─	─	九八・〇	─	─
平均	五九・九	─	─	五二・一	─	─

備考 大正五年及六年의二個年平均成績

開花로부터 開絮까지의 所要日數는 氣候에依하야 變異가 잇는데 高氣溫으로 乾燥한때는 所要日數가 減하고 低氣溫、多濕한 때에는 增加하므로 一律로 말하기 어려우나 初期에 開花한것은 所要日數가적고 晩期開花한것은 느질수록 더 만흔日數를 要한다。

이제 開花로부터 開絮까지의 所要日數를 示하면如左하다。

◇圖表는 開絮期棉作生育狀況

蠶業令을改正 取締範圍를擴張

目下總督府에서立案

總督府에서는 大正八年에 二十九個條에 亘한 朝鮮蠶業令을 發布하야 蠶種製造業에 對한 取締를 行하여오든바 同令은 發布를 본지 十七年이라는 長久한 時日을 經過한 今日에잇서 時勢에 副合되지못하는 點이 적지안타는것으로 四年前부터 그 改正을 企圖하든터인데 其間日本內地 原蠶種管理案及 蠶絲處理法과의 關聯問題에잇서 意見의 一致를 보지못하고 잇든바 이번에 거의 全體에 亘하야 修正을 加하려고 改正案을 立案中이라는데 從來 同令은 蠶種製造業에 限하야 適用하든것을 今般은 桑苗生産業 養蠶業 桑苗及 蠶種、繭의 仲介業 又는 保管業에도 適用하기로 하고 從來의 二十九個條를 四十三個條로 늘려서 그取締範圍를 擴張하는同時에 前記 諸業의 統制를 一層 强化할 計劃이라한다 그러고 施行規則도 同時에 立案中이라 한다

泗川棉花共販狀態

【泗川】 農家唯一의 副業農産物인 慶南泗川郡의 棉花는 지난九月初旬頃 大暴風雨로 被害가잇섯슴도不拘하고 其後豫想以外로 成育이 良好하야 大豊作이엇다는데 지난 二十七日부터 共販이 開始되야 當日 出廻가 一等 三萬七千 二百六十一斤 二等二百八十五斤 三等 四十一斤 四等 百一斤 五等 二百四十八斤 合計 三萬七千九百三十六斤에 達하야 그價額 六千四百五十圓九十九錢으로 各等販價는 如左하다

一等	十七錢一厘
二等	十六錢二厘
三等	十四錢五厘
四等	十一錢八厘
五等	八錢三厘

林道百二十三線 一個年繼續開發

國費九萬八千圓、道費四萬二千圓으로 明年度부터着手計畫

明年度부터 十個年計劃으로 着手되는 民有林의 林道開發은總線路數 百二十三線 그延長一千五百軒工費總額 約三百萬圓의豫定인데 明年度는 國費 九萬八千圓 道費四萬二千圓으로서 忠南 全北南道를除外한 十一個道에 一道一路線식 延長 百五十三粁의 林道開發工事를 實施하기로決定되엇다

開發、十一個所

右各道開設地域大體는 如左하다

◆京畿道 抱川郡二東面(一〇、三四粁)
◆忠北道 忠州郡荷川里(六粁)
◆全南道 長城郡北上面(九粁)
◆慶北道 聞慶郡大美山(八粁)
◆慶南道 居昌郡德裕山(十粁)
◆黃海道 瑞興郡西仙岩(十粁)
◆平南道 陽德郡溟石(十粁)
◆江原道 金化郡孤嵋(七粁)
◆咸南道 定平郡高城嶺(六粁)
◆咸北道 鏡城郡秋谷川(九粁)

鹽專賣制度를 全滿에實施決定

徐徐히實施에着手

【奉天】 滿洲國財政部에서는 實業部와 協力하야 鹽專賣에 關한 調査研究를하고잇든바 其主要題目으로서 奉天省에도 吉、黑兩省과 同樣으로 專賣制를 實施하는 問題에 對하야 財政部에서는 奉天省에만 限할것이아니라 全滿에 亘하야 專賣制를 採用한다는 結論을 어더 實施키로 되엇다는데 實施期는 財政豫算技術等 關係로 奉天省 熱河省等의 特殊事情에 鑑하야 直時 實施키는 困難함으로 徐徐히 實施에 着手키로 되엇다

平壤고무靴、洋襪 今年上半期發送高

【平壤】 今年上半期에잇서 平壤의 洋襪發送高는 總計百六十七萬七十一打로 主要發送地는 다음과갓다

京城	一三三、九一九打
新義州	八五、六〇六
熙川	五七、七三〇
咸興	五六、六〇八
大邱	五〇、四九二

그러고 同期에잇서 고무靴의發送高는 總計二百八十四萬二千二百二十七足으로 主要發送地는다음과갓다

新義州	一八四、三二八足
元山	七八、三四九
熙川	一四一、一七一
滿洲	一、〇二一、〇三七

硫安價暴騰 農家에大打擊

總督府서對策講究

最近 硫安市勢는 四圓五十五錢이라는 天井不知의 高價를 示하야 農家金肥의 使用額이 激增하는 此際憂慮할 現象을 呈하고 잇는바 이제 그 暴騰한 原因이라함은 肥料價及米價高에 依한 農家의 買氣가 늘어진것과 間接으로는 伊에紛爭에 對한 影響이 적지안흔데 그래도 相對的으로 價格이 高騰한것이 事實이어서 農林局尾崎技師는 다음과가티말한다

最近 硫安은 四圓五十五錢에올라 前年三圓五、六十錢에比하야 約一圓가량이高騰한데 이모양으로 나가면 農家에 打擊이 不少할것으로 農林省과協議하야 그對策을講究할豫定이다

昨年森林被害 百六十餘萬圓

民有林은百卅萬圓餘

昭和九年中의 全朝鮮森林被害總額은 百六十一萬一千八百十九圓으로 그內容을보면 病虫害 百卅二萬九千五百七十二圓 火災 十一萬八千五百六十七圓 濫伐 七萬一千七百六圓 其他 二萬四百五十八圓인데 그中 民有林의 被害는 百卅萬四千六百六十七圓이다

盈德産組合屋着工

【盈德】 慶北盈德郡에서는 年數百萬圓에 達하는 海産物과 副業製品·木炭 繩叺 養蠶其他産物도 多數히 輸移出되는바 이를 統制하기爲하야 過般盈德産業組合을 組織하고 이번에 敷地八十五坪을 購入하야 五千五百圓의 工費로 事務室及 倉庫를建築中 이라는데 來十二月에竣功되리라한다

貨物運送關係 規則改正의影響

(二) ‖一般貨主에及하는要點‖

六、荷受人 또는 着驛의 變更 引渡의中止、發驛에 送還等의 指示請求에 應한境遇 貨物保管料 及 貨車留置料 計算時間의 終期 又는 始期를 從來는 鐵道에서 이 手配를 完了한 時로되어잇든것을 指示請求의 通知가 着驛에 到着한 時로 곳치어 從來의 鐵道의 內部手續에 依하야 밧고잇든 荷主의 過重負擔을 是正하얏다

七、鐵道의 責任에 歸할 事由에 依하야 指示請求를 受한 境遇 運賃 及 料金의 追徵 又는 拂戾를 如左히 改正하얏다

(가) 託送取消의 境遇 從來는 이미 徵收한 集貨料、貨車留置料等의 料金은 事由如何에 不拘하고 拂戾치안튼것이 今番의 改正에 依하야 運賃의 拂戾와 同時에 此等의 料金도 拂戾하기로되엇다

(나) 發驛、送還의境遇 從來는 往路의 이미 運送한 區間에 對한 運賃 及 料金은 이를 徵收하고 復路만 無賃으로 送還하고잇든것이 今番의 改正에 依하야 往路의 運賃 及 料金도 全部拂戾하기로되엇다

(다) 着驛變更의境遇 從來는 左의 區間往路의 運賃、料金만 無償으로하고 往路의 運賃 及 料金은 이를 徵收하고잇든바 今番의 改正에 依하야 此運賃及料金도 收受치 안키로되엇다

(라) 發驛을 經由하야 他驛으로 着驛을 變更할時는 貨物所在驛 發驛間

(마) 貨物所在驛 發驛間의 輸送順路에 잇는 途中驛 또는 其途中驛에서 分岐하는 他驛으로着驛을 變更하는時는 貨物所在驛과 其途中驛間

八、增運賃의 減免에 關한 規定을 明示하야 鐵道에서 特別한事由가잇다고 認한時는相當히 減額하거나 又는收受치안흘수잇게 되엇다

九、簡易驛着貨物에對하야서는從來 運賃料金을 着拂로 하지 못하얏스나 今番東幕簡易驛着貨物에 限하야 着拂의 取扱을 하기로되엇다

十、發驛送還의 境遇의 運賃料金의 着拂을 認하얏다 從來는 指示請求에 應한際에 其請求者로 부터 이를追徵하고 잇든바 改正後는 各取扱모다 이着拂을 認하야 荷主의 利便을 圖하기로되엇다

十一、發驛送還、着驛變更等의指示請求를 受한境遇 着驛에서 貨物保管料 又는貨車留置料를 要할時는 原則으로 指示請求者로부터 收受하기로 되어잇는바 此等의 料金을 必要로하는 原因이 荷受人에게 잇는때는 其支拂을 荷受人이希望하는 境遇도잇슴으로 如斯한境遇 貨主의 希望에 副토록 荷受人에게서도 收受할수잇게되엇다

八月中滿洲國의 商標登錄申請數

【奉天】 지난八月中에 滿洲國國務院 商標局에提出된 國別商標登錄申請數는 左와如하다

日本	一二一
英國	一五
米國	一五
獨逸	一四
瑞西	六
체코	一
無國籍	一
滿洲國	一二
合計	一八五

副業產品時勢週報

朝鮮副業協會調査

京城 十月一日

◇菜蔬類

品名	單位	價格
고구마	一貫	[illegible]
로란	同	[illegible]
馬鈴薯 白	同	[illegible]
人蔘	同	[illegible]
蓮根	同	[illegible]
生薑 大	同	[illegible]
同 小	同	[illegible]
수박	十貫	[illegible]
中國胡瓜	百個	[illegible]
茄子	百個	[illegible]
일년감	一貫	[illegible]
시금치	同	[illegible]
갓	同	[illegible]
南瓜	同	[illegible]
玉葱	十二貫	[illegible]
靑葱	十把	[illegible]
미나리	十把	[illegible]
마늘	百斤	[illegible]
乾蕨	一斗	[illegible]
松茸	百匁	[illegible]
椎茸 咸南	同	[illegible]

◇果實類

品名	單位	價格
林檎 旭	四貫	[illegible]
同 紅玉	三貫	[illegible]
同 倭錦	四貫	[illegible]
梨 長十郞	四貫	[illegible]
同 晩三吉	同	[illegible]
同 鮮柿	三百五十個	[illegible]

◇毛皮類

品名	單位	價格
앙고라兎毛 三時半以上	一封度	[illegible]
同 三時以上	同	[illegible]
同 二時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時以上	同	[illegible]
同 一時半以上	同	[illegible]
同 梳毛	同	[illegible]
펠트	同	[illegible]

◇家畜飼料

品名	單位	價格
鷄飼粕	一〇	[illegible]
成鷄用配合粉餌	五斗	[illegible]
育雛用	同	[illegible]
中雛用	同	[illegible]
鷄卵用粉	[illegible]	[illegible]
魚粉〆粕	十貫	[illegible]
糠	八五斤	[illegible]
糠殼	百二十斤	[illegible]

◇川魚類

品名	單位	價格
자라	一貫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잉어	同	[illegible]
미꾸라지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뱀장어	同	[illegible]

◇養鷄用鐵網

品名	單位	價格
四尺幅 二寸目	百尺	[illegible]
四尺幅 一寸半目	同	[illegible]
四尺幅 一寸目	同	[illegible]
三尺幅 二寸目	同	[illegible]
三尺幅 一寸半目	同	[illegible]
三尺幅 一寸目	同	[illegible]
三尺幅 五分目	同	[illegible]
靑金網 一分目	三尺	[illegible]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生鷄	百匁	[illegible]
生豚	一貫	[illegible]
生兎	同	[illegible]
鷄卵	同	[illegible]
同	同	[illegible]
四元鳥卵	百個	[illegible]
鶩卵	同	[illegible]

◇其他副業品

品名	單位	價格
蜂蜜	一斤	[illegible]
經木眞田	一反	[illegible]
麥稈眞田	同	[illegible]
柘榴	一貫	[illegible]
番草	同	[illegible]
漆	同	[illegible]
椎茸	同	[illegible]
胡麻油	一斗	[illegible]
生落花生	百斤	[illegible]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九四六一	忠南牙山郡溫陽面 排芳面	九月十日	木澤 力藏
九一〇一	同扶餘郡鴻山面、玉山面	同十一日	京城府永樂町 代表者 岩永 正男 / 同西四軒町 山本乙五郞 / 同中學洞 韓 祥履
九六二四	全北井邑郡山外面	同	金堤郡金山面 代表者 古林峰太郞 / 同 吳祥圭 / 同 金周珊 / 安州郡安州邑 趙東日
四五五〇	慶北尙州郡牟東面	同	福岡縣遠賀郡水卷村 三好 孝宗
九八四六	黃海遂安郡梧洞面	同十二日	平壤府若松町 佐佐木鐵藏
一一四三二	平北熙川郡北面	同	金堤郡金溝面 代表者 二階堂治郞吉 / 井邑郡泰仁面 權明洙
一二八九	江原高城郡新北面	同	江陵郡江陵邑 代表者 鄭萬敎 / 楊州郡美金面 金鎬奎 / 高陽郡崇仁面 王再喆
八三九四	全南和順郡春陽面	同十三日	大阪市北區玉江町 南鮮炭鑛株式會社
九八三八	同瑞山郡金井面	同	京城府光熙町 八田 貢
一〇〇三七	忠南扶餘郡窺岩面 林川面	同十四日	同三坂通 代表者 藤村 忠助 / 靑陽郡木面 尹鍾順
一〇六七九	咸南安邊郡文山面 衛益面	同	京城府鍾路 代表者 朴[illegible] / 始興郡西二面 兪鎭泰
八五三八	京畿楊平郡龍門面	同十六日	大阪市浪速區西濱南通 川口平治郞
八七一九	平南德川郡蠶上面	同	平壤府泉町 佐藤모오데
一一二〇四	平北楚山郡江面	同	共同鑛業權者金興三及郭致瑞의持分을 平壤府船橋里姜利廣 同鷄里金明鎬及 同上里劉濟奉에게移轉함
一〇〇七九	同昌城郡靑山面	同十七日	東京麴町區內幸町 東洋産金株式會社
一一二一八	同	同	同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九一一四	忠南公州郡長岐面	九月十一日	三好廣次郞任意脫退함
九七六一	平北義州郡加山面	同	張麟權任意脫退함
一〇九〇七	同	同	同
一〇二三六	京畿安城郡安城面 大德面	同	金然忠任意脫退함
一〇二三八	忠南靑陽郡木面	同	倉內松造任意脫退함
八七九二	同保寧郡周浦面 靑蘿面	同十三日	岡田宗平任意脫退함
八三九四	全南和順郡春陽面	同	中村茂太郞任意脫退함
一〇二〇一	慶北奉化郡小川面	同	李宗燦任意脫退함

鑛務一般及出願手續

和順鑛務所

京城鍾路

(和信商會越便)

電話光化門長2659番

特히伸國稅簡가完全하오며 地方便宜를圖키爲하야通信事務를取扱함

質疑

[illegible]

(問) 小生은 果樹園經營者이온데 本果紅玉 九年生이 數日前부터 葉이 黃變色이되야 落葉되며 數日을 經過하면 全部落葉되야 枯木될듯하오니 엇더한原因이오며 如何히하야 速히回復되겟는지요 斑點病도안인듯 합니다 急히下敎하시옵소서 (平南一讀者)

(答) 現狀을보지안코는 對答하기가 困難합니다 大槪 樹葉이 黃變色으로變하야 落葉되는 原因 몃가지를 들면 첫재로 札幌合劑와가튼藥劑를 잘못써서 藥害를 밧은것과、暴風雨가甚하야 樹根을 傷하는境遇 地下排水가 不良할時 其他 斑點病 鐵砲虫等의 病虫害가 甚한境遇인데 그 對策으로는 첫재 藥害를 바더슬 때는 次回의 藥劑撒布에 注意하는 同時에 培肥를 適當히하야 果木의元氣를 回復식히는 데努力할것과 暴風雨에 侵害될때는 支柱가튼것을세우고 樹根의 活着을 助長할것 排水不良時는 溝或暗渠等을 設하야 排水를 잘식힐것 病虫害의 境遇에는 豫防驅除를 겨울러말것입니다

▲夏秋繭取引市勢 (農林局發表)

月日	所		種類	最高 (圓)	最低 (圓)	平均 (圓)	賣買數量 (貫)
九、二四	慶南	晉州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黃海	瑞興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二五	忠南	禮山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全北	南原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同	全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全南	咸平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同	光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慶北	尙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慶南	晉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同	密陽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黃海	瑞興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同	金川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同	海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江原	金化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咸南	文川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二六	忠南	禮山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全北	南原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慶北	尙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慶南	密陽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同	晉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黃海	海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同	金川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咸南	文川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二六	全北	全州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二七	同	同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同	南原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慶北	尙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黃海	金川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咸南	文川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二六	全南	光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二七	忠南	禮山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黃海	瑞興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同	海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全北	全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二八	慶南	晉州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火賊 林巨正 (97)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五의七

해가 거의 다질때 기생들이 각기 저의집으로 돌아가는데 계향이는 잠시 뒤떨어저잇다가 일어서며 한온이더려

『되지못한 음식이나마 숙종환생이니 꼭 오세요』

하고 당부하니 한온이는 대답을아니하고 꺽정이의얼굴을 바라보앗다 계향이가 다시 꺽정이어께 가서

『선다님 엇더케하실랍니까 오실랍니까』

하고 뭇는데 꺽정이가

『글세』

하고 대답을 끈지하얏다

『너무 그러지마세요』

『무얼 그러지말란말이냐』

『사람을 너무 푸대접말란말슴이에요』

『내가 누구를 푸대접하드냐』

『누가 오지랍넓게 남의말할라구요 내가 선다님 뵈입구 할말슴이 만슴니다 오늘밤에꼭 오세요』

『할말이 만흐면 오늘조용히 보구 왜 말안햇느냐 밤에할말과 나제할말이 달으냐』

『마부가 기다리니까 긴말할새 업세요 자 나는 갑니다』

계향이가 박그로 나갈때 황텬왕동이에게

『놀러오십시요』

하고 인삿조로 말하는것을 황텬왕동이는 외면하고잇스며 못본체하얏다 계향이가 따루이래까지 나려가서 다시 방안을 드려다보며

『꼭 오시지요』

하고 다지니 꺽정이는 벙그레 웃스면서 고개를 끄덕이엇다

꺽정이와 계향이의 사이는 기집의 욕심이 사내의 정보다더 만하여 들어붓고 떨어지지 아니하얏다 꺽정이가 박씨 원씨 두녀편네를 다리고 살면서도한달에 두세차례 계향이 방에가서 잣섯는데 나중 김씨를 어든뒤로 거의 한달작간 계향이를 찾지아니하야 한온이가 중간에서 공연한 매원을 들어섯다 계향이가 한온이의 생일날 사랑노름 오기로 언약할때 생신날 밤참은 저의집에서 준비할터이니 임선다님과 가티 놀러오라고 청하야 한온이가 선선이 허락하고 꺽정이에게 미리말까지하얏섯다 이런속을 황텬왕동이는 알까닭이업슴으로 혼자 심중에생각하기를

『계향이란년이 흉악한 년이다 저의 임선다님을 내가 빼서 가려구오줄 짐작하구 밤에 가치자며 이에기두 못하게하라구 가진요신을 다부려서 저의집으루 끌어가는 모양이다 이별장 말대루 애첩식 묵어가며 가치가자구 졸러야 소용업슬건 정한일이구 오늘밤에 자세한 이에기하기두 틀린바엔 지금 대충 한말하구서 사매문 다치기전에 떠나가는게 조켓다』

하고 꺽정이를 보고

『나는 지금이라두 떠나겟습니다』

하고 말하얏다 한온이가

『이사람 날더러 미처다드니 정작 자네가 미첫네그려 지금 어딀 떠나 이사람아』

하고 억개를 툭치고 꺽정이가 그다음에

『지금 해다젓다 자구 내일가렴으나』

하고 얼골을 물그럼이 바라보앗다 죽장가리 부어올른빨을 꺽정이는 처음 본드시

『빨이 아프지나 안흐냐』

하고 물어서 황텬왕동이가 머리를 가로흔든뒤 곳

『내가 올때』

하고 서울온사연을 말하기시작하얏다

『이별장말슴이 이번에는 꼭뫼시구오거나 그러치못하면 분명이 어느날 오신다는 말슴을 들구오라구 합듸다 그런데 뫼시구갈 가망은 업는것가트니까 어느날쯤서울서 떠나신다구 대개날짜라두 정해서 말슴해주시면 조켓습니다』

꺽정이가 히자만흔 눈을 또고 보면서

『내가 너들에게 매어지내는사람이냐』

하고 곳 호령하듯 말하는데 언성만 놉지안흘뿐이엇다

『매어지내다니 말슴이지만 내가 오구두십지안흔 서울을 와다가다하는동안에 남에게매어지내는 신세가 가련한줄을 뼈에사무치게 알엇습니다』

『그래 신세가 가련한줄을 알엇스니 장차엇더케한단말이냐』

『여러사람들이 전부다 서울루 오거나 그러치안흐면 사방으루 허터진다구들하는데 만일 서울루들 오게된다면 나는 혼자 광복산버덩뎌한 등에속에 들어가서 산비탈을 일워먹드래두 떨어오지안켓습니다』

『무어시 엇재 사생동고한다구 맹세한놈들 말본새 되엇다』

『광복산에서두 각금들 사생동고 맹세를 들습듸다』

『너부터 말본새가 되엇느냐말이야』

『나는 말슴들어봐서 이번에 아주 영결하고 하직하구갈생각까지 업지안슴니다』

『영결이든 아니든 갈곳을은 다가거라』

『그럼 나는 갑니다』

황텬왕동이가 분연히 일어서라고할때 멍뎅 울리는 이러소리가 들렸다。